

ACC개관 7주년 시민대토론회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환경·사회·경제 가치의 조화

2022. 12. 14.(수) 14: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온라인



주최

ACCF Asia Culture City Forum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협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ACC개관 7주년 시민대토론회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환경·사회·경제 가치의 조화

2022. 12. 14.(수) 14: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온라인



주최

ACCF Asia Culture City Forum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협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목차 Contents

1부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좌장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기조강연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07
발제문1	김선애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시민의 좋은 삶을 설계하는 모두들 위한 문화도시	25
발제문2	민진경 (북해도교육대 준교수) -----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삿포로	51
발제문3	주명옥 (광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획팀장) ----- 지속가능성 관점의 광주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67
토 론 문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원) -----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 윤 익 (미술문화기획자) ----- 정인서 (광주서구문화원 원장) -----	85 93 97 103

2부 라운드테이블 ‘민·관·정 협의체 역할 및 과제’

사회 윤준혁 (지원포럼 도시환경분과 위원, (주)지니엑스 대표) -----
토론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지형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
박종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상임대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ACC개관 7주년 시민대토론회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환경 · 사회 · 경제 가치의 조화

- ◆ 일시 : 2022. 12. 14.(수) 오후 2시
- ◆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온라인
- ◆ 주최 :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 협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 ◆ 진행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도시환경분과위원장
-창의기업 도시문화집단CS 대표
-광주비엔날레재단 미래혁신위원
-전.광주발전연구원 사회문화실장, 도시환경실장



윤준혁 (주) 지니엑스 대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도시환경분과위원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협의회 문화특별위원 위원
- 광주문화재단 자문위원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운영위원
- 전.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 ◆ 1부 참여자 : 김병완, 김선애, 제현수, 민진경, 주명옥, 김기곤, 김지원, 윤 익, 정인서
- ◆ 2부 참여자 : 김광진, 지형원, 이강현, 황풍년, 박종화, 김병완

1부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구분	시간	소요시간	성명	소속
개 회	14:00~14:01	1'	임 종 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사무국장
인사말씀	14:01~14:03	2'	지 형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인사말씀	14:03~14:05	2'	이 강 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진 행			정 성 구	지원포럼 도시환경분과 위원장,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기조강연	14:05~14:20	15'	김 병 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발제(1)	14:20~14:40	20'	김 선 애 제 현 수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발제(2)	14:40~15:00	20'	민 진 경	북해도교육대 준교수
발제(3)	15:00~15:20	20'	주 명 옥	광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획팀장
준 비	15:20~15:25	5'		
토론(1)	15:25~15:37	12'	김 기 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
토론(2)	15:37~15:49	12'	김 지 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토론(3)	15:49~16:01	12'	윤 익	미술문화기획자
토론(4)	16:01~16:13	12'	정 인 서	광주서구문화원 원장
질의응답	16:13~16:25	12'		
휴 식	16:25~16:30	5'		

2부 라운드테이블 '민·관·정 협의체 역할 및 과제'

구분	시간	소요시간	성명	소속
진 행			윤 준 혁	지원포럼 도시환경분과 위원, (주)지니엑스 대표
토 론	16:30~17:55	85'	김 광 진 지 형 원 이 강 현 황 풍 년 박 종 화 김 병 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광주문화재단 대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상임대표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폐 회	17:55~18:00	5'	기념촬영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 현) 광주대학교 교수
- 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University of Delaware) 교환교수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전) 환경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김병완



여는 말

2002년 12월 14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광주문화수도 육성'이 발표된 이후 시간이 흘러 오늘 우연하게도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에서 중단없이 정책의 연속성(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 위에서 21세기의 화두이자 오늘의 주제인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문화도시"(환경·사회·경제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동체)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함

순서

1. 지속가능성에 관한 담론
2. 지속가능한 문화중심도시란?
3. 지속가능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과제

1 지속가능성에 관한 담론

1. '지속가능' 의미의 이중성과 혼란

- 지난 몇 년 사이에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이 정부정책이나 기업경영에서 아주 익숙하게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시민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아직도 쉽지 않음
-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계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막연한 걱정에서 생긴 말로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여기에는 개념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명확하게 생태계가 '지탱가능한(sustainable) 범위 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말로는 단순히 시간적 지속성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되면서 이중적 해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기는 것임

'지속적 발전'과 '지속가능발전'은 본질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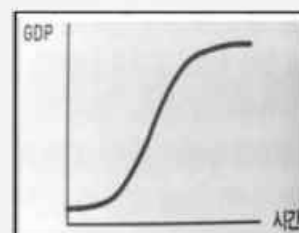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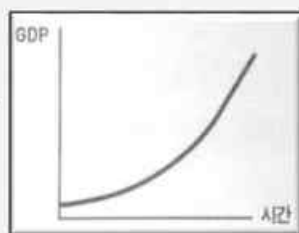
지속적 발전
CONTINUOUS (시간적 지속성)
- TIME -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체제의 지탱가능성)
- SYSTE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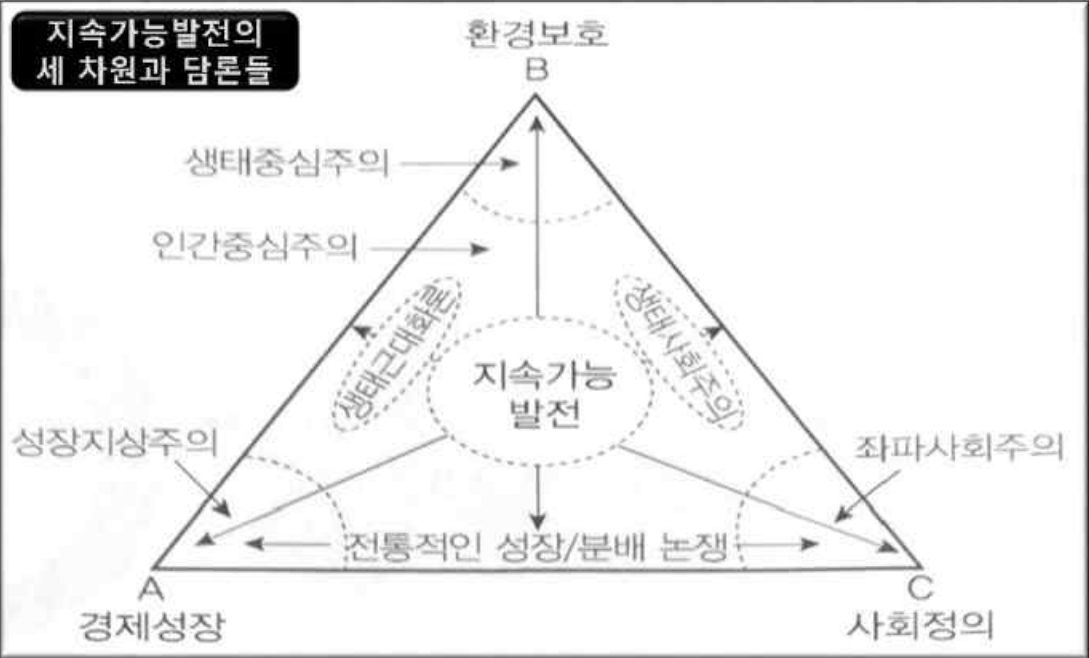
무한한 성장

≠

질적인 발전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양한 사상적 입장들



3.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과정



4.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Brundtland Commission
"Our common future" 1987

1987년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5.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2015.9)

17 Goals(목표) 169 Targets(세부목표) 230 Indicators(지표)



2 지속가능한 문화중심도시란?

2

1. 문화중심도시는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향하는가?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오해

- 2022년 3월에 작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2022~2028년」을 보더라도 보고서 제4장에 '지속가능한 조성사업 실행'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속적'(중단없는)이라는 시간적 의미에 그치고 있음
- 2022년 7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작성한 자료 중 하나의 제목을 보면 "**지속 가능한 창의 융합 거점도시 광주** : 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continuous)'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지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조화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sustainable)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온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가치와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을까?
- ‘지속가능한’이라는 개념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자원고갈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지속가능한 삶이란 근본적으로 건전한 생태적 기반 위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로 확장되고, 그 안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해석한다면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요소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기반 위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로서, 지속가능도시와 문화도시의 가치 공유가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음



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원칙과 정신에 충실한가?

- 2022년 1월에 제정·공포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조에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3조에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22.1.4.제정)의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제 2조(정의) 제 3조(기본원칙)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 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제 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 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제 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제 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 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 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 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 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 10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제 11조(추진상황의 점검) 제 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 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 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 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제 24조(포용적 사회 구현) 제 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제 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 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 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6장 보직 제 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 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 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제 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 31조(국제규범 대응) 제 32조(국회 등 보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2022.11.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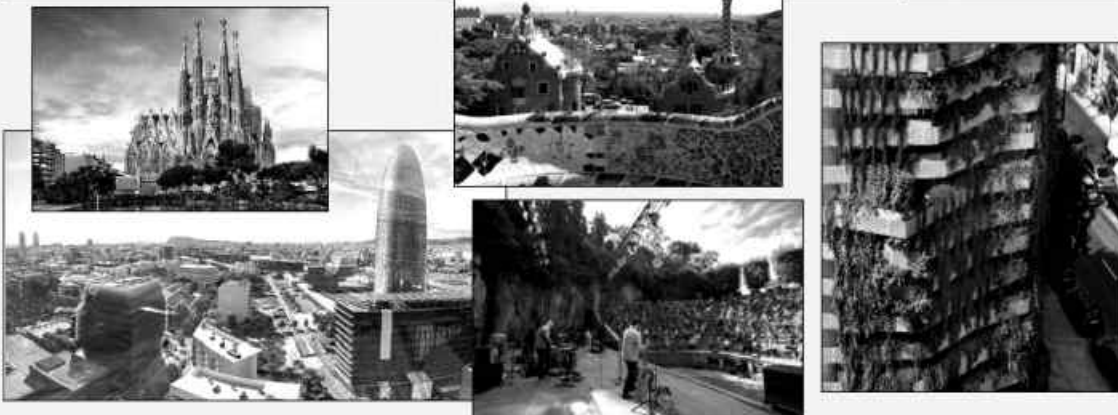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제 2조(정의) 제 3조(책무)	제 11조(구성 등) 제 12조(위원장의 직무) 제 13조(운영위원회 등) 제 14조(회의) 제 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 16조(의견청취 등) 제 17조(운영세칙 등)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제 4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제 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 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 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 18조(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제 1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 20조(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등) 제 21조(지속가능발전 실천활동 지원) 제 22조(국내·외 협력 등) 제 23조(국가위원회 등 제출) 제 24조(시행규칙)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 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 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부칙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 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들



바르셀로나 :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선도적 문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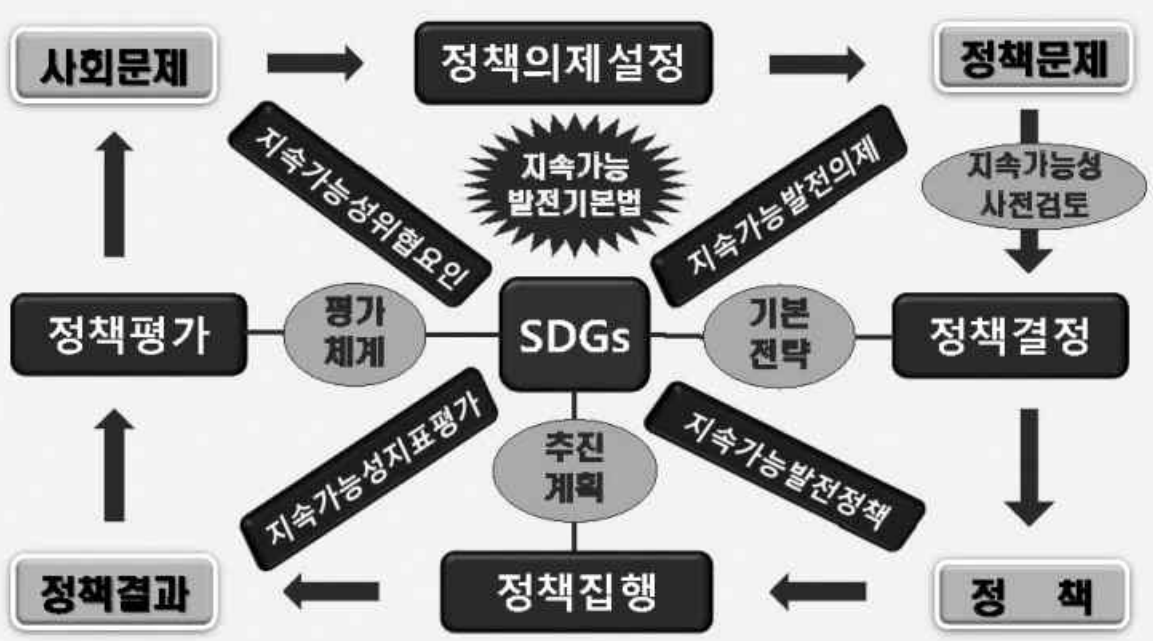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있는 역동적인 문화도시
- 전통적인 역사문화도시 바르셀로나가 지속가능한 도시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됨
- '22@Barcellona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문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면서 미디어·ICT·에너지 등 혁신창출이 가능한 지식집약형 문화도시로 재탄생함



3 지속가능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과제

3

1. SD기본법 체제 위의 정책과정과 SDGs 내재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0'에 기반한 문화도시 정책 추진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제도 시행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모든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필요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요구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과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원칙에 상충되지 않는지 계획수립 및 수정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을 어떻게 광주시 공공디자인 사업에 도입하여, 광주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요구됨
- 충청남도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4년 전부터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2. 지속가능성의 3대 요건을 충족하는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3가지 요건

생태적 요건

- 문화도시가 자칫 인위적인 문화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하고 건축과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적 요소와 환경·생태적 기반**을 훼손하거나 자원·에너지를 낭비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현이 절박한 시대에 도시의 자연자산과 녹지공간 등 환경·생태적 요소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필수요건으로 고려되어야 함
- 무등산과 영산강 같은 광주의 환경·생태적 자산들을 역사·문화적 자산 및 활동들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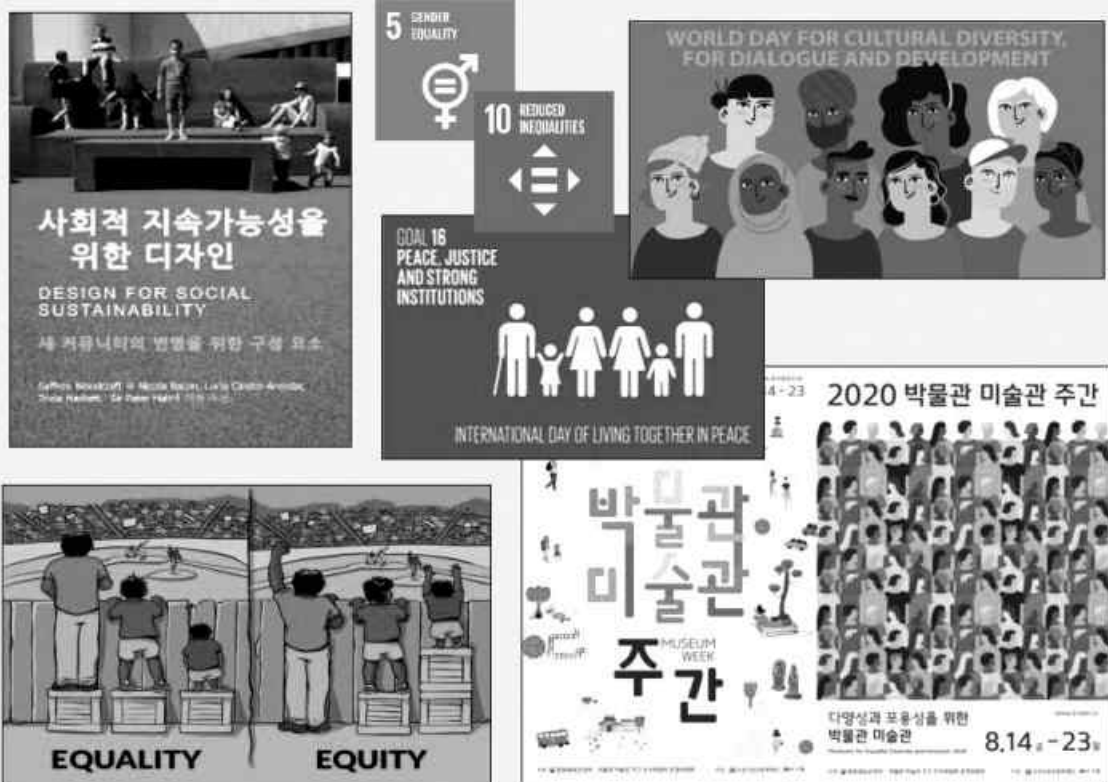


- 박물관 건물의 지열 열교환기, 태양 열 패널, LED 조명 및 고성능 단열재의 조합은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며, 빗물은 지하에 저장되고 관개 및 화장실 시설에 사용되어 건물의 물 소비를 줄임
- 숲으로 이루어진 옥상과 결합된 물 저장소는 물 유출을 최소화하고 나머지의 물은 바로 옆에 위치한 연못으로 향하는 등 주변으로 물을 공급하여 순환이 됨

문화예술도시
파리의
에펠탑과
하수도

사회적 요건

- 도시에 사는 그 누구도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소외되거나 배제 또는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포용적 문화도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향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다양성의 존중**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열린 사회의 **민주인권 시민의식**과 **공동체정신**이야말로 문화도시의 또 다른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토대로 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가는 문화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가치가 다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이해**,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이 문화도시의 핵심 요소임



경제적 요건

- 지속가능한 문화중심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조적 생태문화 예술활동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문화·역사적 자산을 지속가능한 관광과 경제활동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정책 추진
- 탄소중립 경제활동에 기반한 문화도시로서 화석에너지 과소비형 문화 소비도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립형 생산적 문화도시로의 전환 필요
-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연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문화활동 기여제도 도입 필요
-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거리디자인, 마을디자인 등으로 경제적·사회적·생태적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전략과 정책이 요구됨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CIRULAR ECONOMY

우리씨바 대중교통

ESG경영

The Cultural Sector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the Creative Economy in European Cities
BILIANA MICKOV

Economic Sustainability of Culture and Cultural Tourism
MOEY

런던 남부 Bed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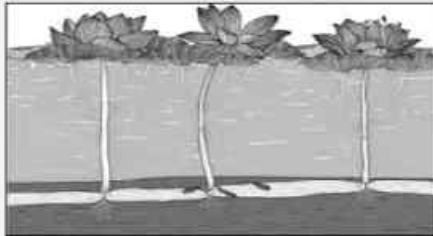
베드제드 건물 개념도

사무실

신스페이스

달는 말

- 환경·사회·경제 가치의 조화 속에 자리잡은 문화 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는 연꽃에 비유할 수 있음
- 물 속의 환경생태적 토양에서 연근이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때 사회·경제적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줄기를 통해 영양소를 공급하여 문화도시의 모습으로서 연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상징함



참고 문헌

- 김병완 외. (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대영문화사.
- 노영순. (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정책연구」 2017-0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손예령. (2019).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 33권 제2호.
- 이병준. (2010).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속성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통권 70호).
- 정우양·류제한·오세규. (2005). 「유럽생태·문화도시 읽기」. 전남대학교 출판부.
- 황광선·염지선. (2019). “지속가능한 도시의 유형과 속성 및 문화적 요소의 발견”. 「지방행정연구」 제 33권 제4호(통권 119호).
- Kagan, Sacha ed. (2022).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ity*. Routledge.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UN.

김병완 byyakim@hanmail.net
 •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 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 전,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교환교수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
 • 전, 환경부 지방 SDGs 이행 컨설팅 단장
 • 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 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저서 :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공저)

감사합니다

시민의 좋은 삶을 설계하는 모두를 위한 문화도시

김선애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 2020~ 원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총괄
- 2016~2020 원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총괄
- 2001~2015 그림책, 어학콘텐츠 기반 사업전략 및 런칭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RC융합대학 겸임교수
-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장
-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위원회 위원



시민의 좋은 삶을 설계하는 모두를 위한 문화도시

2022. 12. 14.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현수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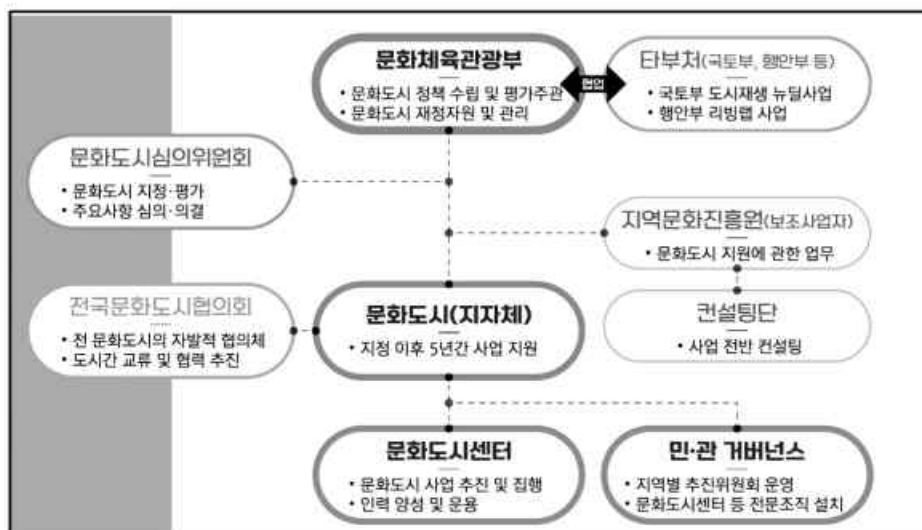
2022.07.24. 전달레훈 세컨드타임테이블 플래시몹

문화도시란?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추진체계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

연혁



문화도시 지정현황

1차 문화도시

부천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도시 부천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느리(慢)문화(문화 서귀포

영도구
예술과 도시와 쉼, 영도

원주시
36만 5천개의 문화도시 원주

전주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특성도시 전진

경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포항시
철의 도시, 문화도시 포항

★ 4차 예비문화도시 16개



생각과 실천을 연결하는 원주테이블 Wonju Table, Connecting Thoughts and Practices

Thank you
기쁨길 credits

120명

1000179보

김효정 고아
구구구 권기희
규칭이 김미림
김미선 김비주
김수진 김지영
김지은 김하나(봄님)
김해훈 김현주
김해영 남윤라
남은주 노...
다원희

일상 속
걸음을 모아
가치를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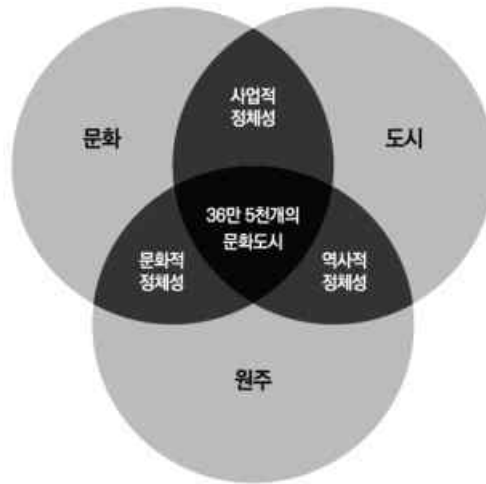
Creating
value by
collecting
steps
in daily life.

ACC of 2020Cul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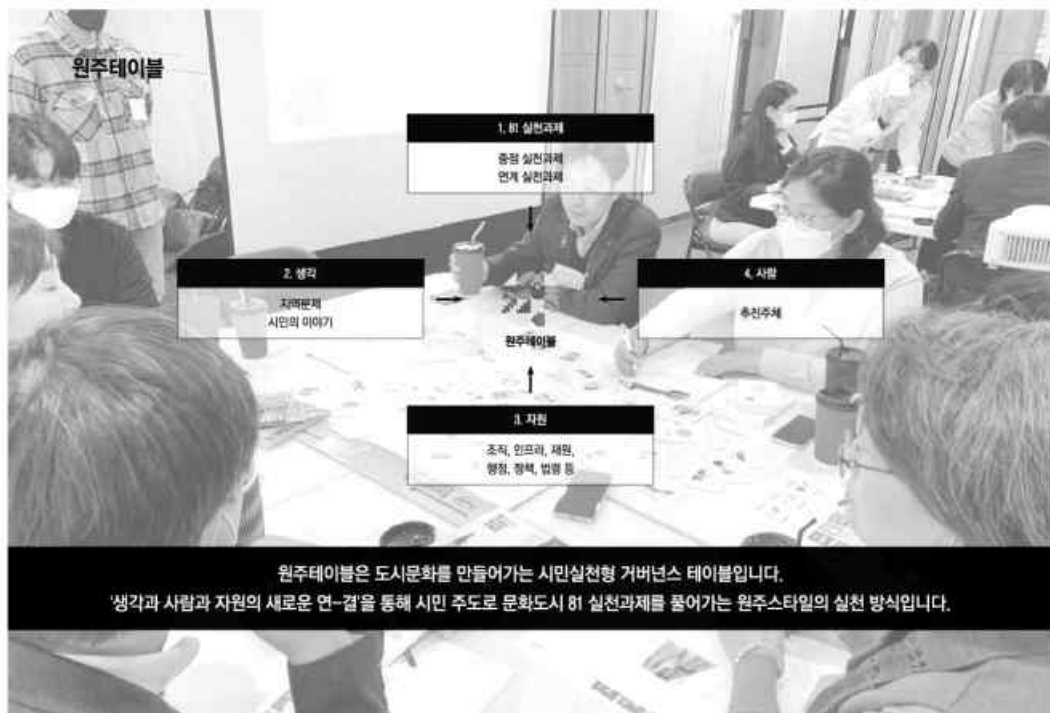
시민의 좋은 삶을 설계하는 모두를 위한 문화도시

원주 MISSION

지역사회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해요!



원주스타일 문화거버넌스 - 원주테이블



경로 설계의 나침반 - 문화도시 81 실천과제 & SDGs

시민의 이야기는 힘이 세다!



힘센 시민의 이야기,
잘 실천되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원주테이블로 그려 보세요!

일상예술의 도시
삶의 이야기

시민 그림책 > 삶은 아름다워

81 실천과제

44년
그동안 문화와 시민을 통해 성장해온
문화도시 그림책 생태계를 재확인합니다.

4

교육을 위한
평생의 교육

1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생각, 상황

문화가 그림책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프로그램 이야기, 책으로도 주목적인
생각과 주제가 필요합니다.

문화도시 원주

사업 개요

대상: 원주 시민, 문화도시 관계자

사업 목표

- 그림책에 대한 의미, 목적을 필요
- 문화에 대한 이야기
- 시민들의 자발적인 필요 조사 지원

이 주 성

자원

- 원주에 거주하는 그림책에
관심이 높은 시민,
- 창의 문화 도시 지원센터
- 그림책 활동가 PC 조사 지원가

<추진표 Table>



81 실천과제
 1-6 청년이동권역 영합 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관리명령 강타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12 지속가능한 도시의 생산

9 산업의 원동력 혁신 발전의 동시화 기반사업 구축

생각, 상황
 여러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소동이 수월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역할 배분 필요함



사업 개요
 문화도시원주시민참여 사업 재구조화
 - 3년 차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향후 계획들을 '성숙'화하여
 사업 재구조화 방향을 논의하여,
 향후사업을 도입할 계획
 - 기간: 2022.9-12.

자원
 학생들이 온 영인 쿨은 기반
 센터라니 재가용 소용인 인력
 시정리의 비트라고.

<대바리클럽>의 매력(장점)



81 실천과제
 21.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문화공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1 지속가능한 도시의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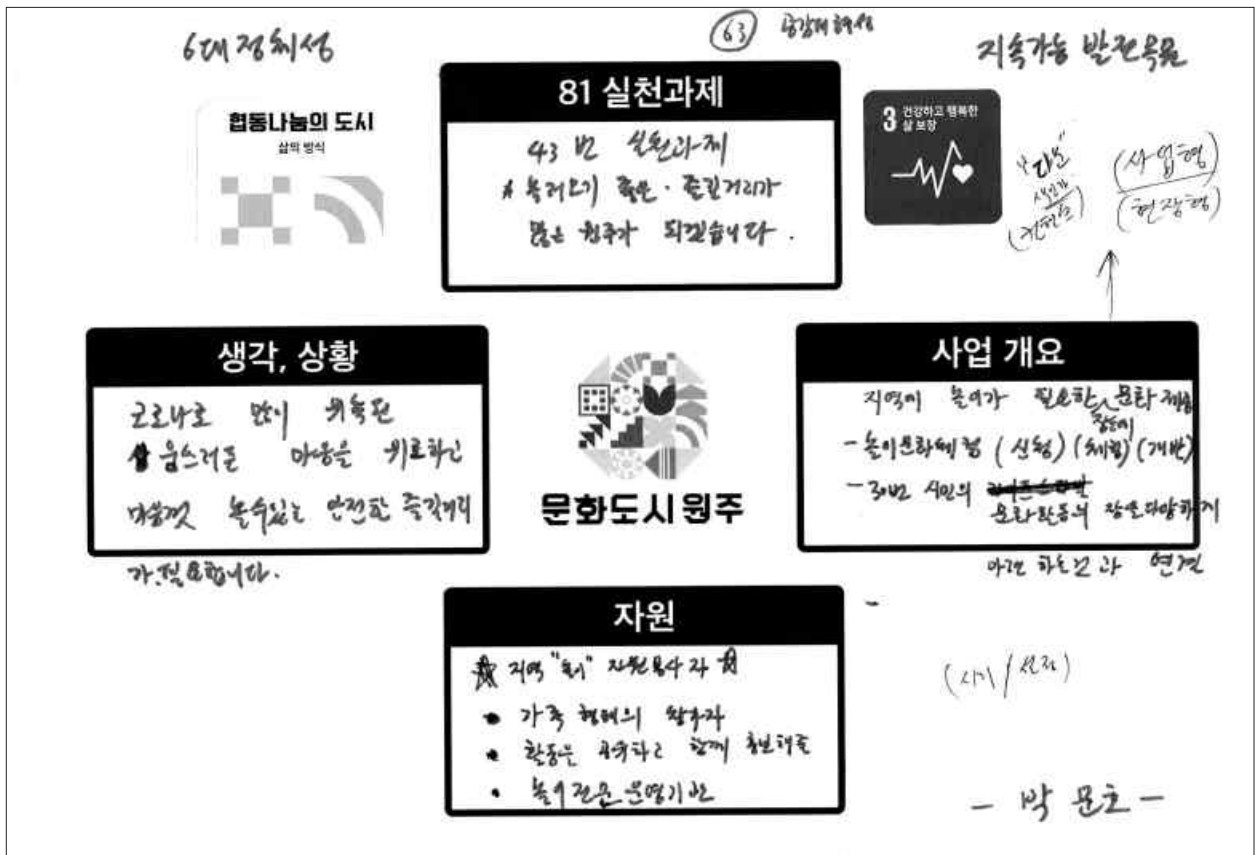
생각, 상황
^{출제 있던}
 하나의 점이었던 주거 공간과 장소, 사람들
 새롭게 발견하고 그 점과 점을 이어주는
 문화도시 미디어의 필요성 (연결).




사업 개요
 * 점점테이블 : 문화도시원주 매거진 <점점> 제작
 - 2022년 4월-7월 4회 발간
 - 기획·편집·디자인·배부·홍보 등 제작비용
 다양한 점점테이블 운영 (산반정원)에서

공적자금을 만드는
 다양한 플랫폼의 가능성.

자원
 * 주민: 주거의 다양한 문화공간들
 : 책방, (커뮤니티)카페 등
 * 사람: 문화기획자, 전업자, 예술가, 01개사 등
 * 활동가: 커뮤니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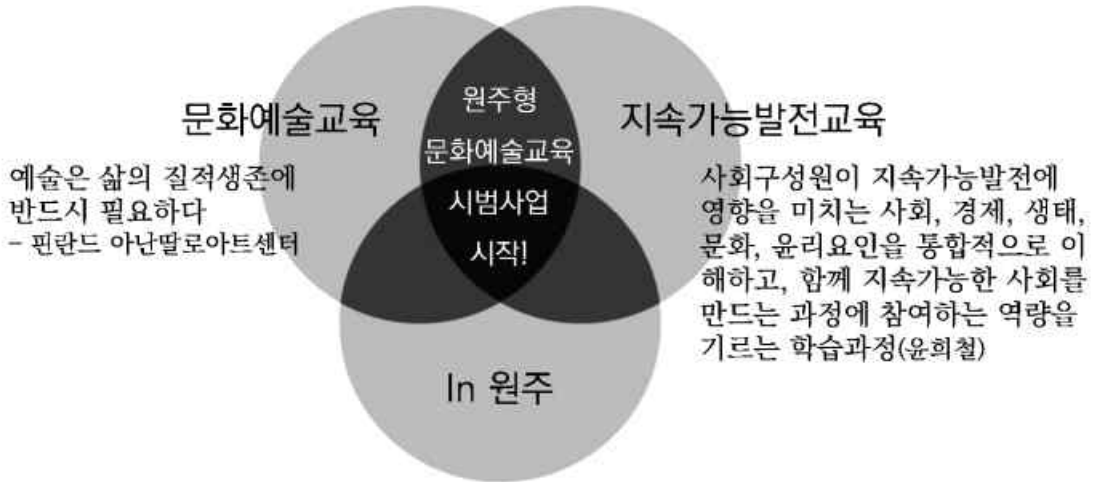


당신의 이야기를 원주테이블로 그려 보세요!

<p>6대 정책시행</p>	<p>81 실천과제</p>	<p>SDGs(지속가능발전목표)</p>
<p>생각, 상황</p>	 <p>문화도시원주</p>	<p>사업 개요</p>
<p>자원</p>		

1. 문화예술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지평열기



포용적 접근의 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테이블 운영 구조(2021)

지역성 기반 커리큘럼 개발과 접근성(Accessibility)이 중요

'17개의 질문 프로젝트'

지역 거버넌스 기초 마련

지역 주관			
원주시 참의문화도시지원센터,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1단계 커리큘럼 점검 및 개발			
이오협	올레넷	교육청	리빙랩
이오 연구진	올레넷 연구진	세계시민교육센터	광양협 연구센터
연세대학교 팀크사업단			
2단계 프로그램 운영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			
3단계 후속 연계 운영			
행가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SK C&C			
공유 및 확산			
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 / SV공유플랫폼 '행가래'			

'이오협의회'

이오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운영



이오(2X5) 프로그램

핀란드의 아난팔로 모델을 참조하여 매주 2시간씩 5주 동안 생존을 위해 수영을 배우는 아동 대상의 생존수영에서 착안하여, 문화예술로 지속가능한 삶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표방한 문화도시 원주형 SDGs 기반 문화예술활동

2022년 1차 문화도시 원주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지원단

(1) 커리큘럼 고도화

이오테이블 및 신규 이오예술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리뉴얼

- 2021년 개별 커리큘럼 대상 교육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고도화
-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운영방식 논의
- '이오어플방학' 특강수업을 통한 커리큘럼 적용과 개발



차시	2021년	2022년
1	변신하는 공간, 이것은 교실이 아니다	특이특이 작업실
2	나만의 변신술	소리로 그린 그림
3	소리로 그린 그림	변신의 기술
4	가면 속 내 친구는 누군까	변신공작소
5	가면 속 내 친구와 함께	이상한 나라, 이오

2022년 문화도시 원주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2021년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한 이오프로그램은 2시간씩 5차시로 학생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예술가의 작업방식을 따라 해보며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고 성취감을 맛보는 매우 유익한 예술교육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였고, 이오프로그램의 목표가 지역의 모든 4학년 학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예술교육이었기 때문에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매우 유의미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문화 격차 해소의 방향은 단순 공연 관람이나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이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교 내부적으로만 진행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예술가 및 관련 단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녹여낼 수 있는 교사, 모든 학생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를 제도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지역교육청의 장학사와 교육행정직이 필요하며, 지역문화예술교육을 공동의 목표로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동초등학교 교사 문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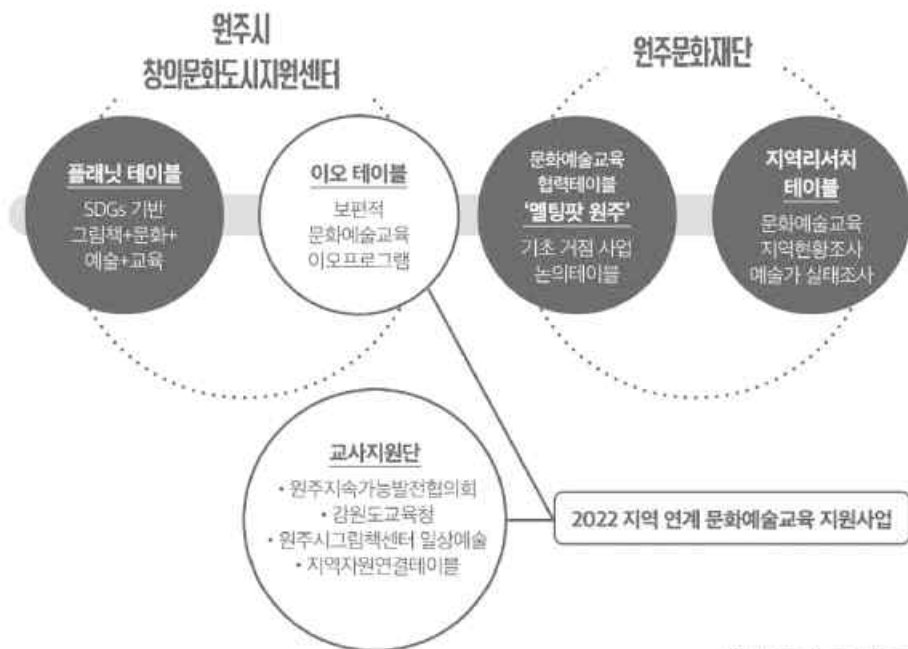
SDGs 기반 문화도시 원주형 문화예술교육 이오(2X5) 프로그램



이오프로그램 목표와 2022년 운영



원주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조(2022)



■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오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지역 안의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그 구조적 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어느 회의 자리에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주의 모든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9%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판을 짜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이 동시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학교'라는 두 지형이 얼마나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현재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오협의회 예술가연구원 김은화

2. SDGs + 지역문화콘텐츠

지역문화콘텐츠를 통해 SDGs를 배우고 행동하는 생태시민이 되기 위한 다양한 접근



SDGs 원주북클럽

17개 목표를 담은 그림책

85권 선정 및 연계 문화활동

이달의 여행

SDGs 원주북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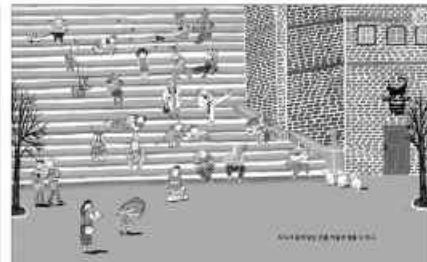
그림책 전문기관을 통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를 담은 그림책 선별 및 전시용 책장 제작
: 원주 버전의 SDGs 목표별 선정 그림책을 원주 지역 내 전시

- 기간: 5월~9월
- 성과 및 의의
 - 문화도시 81 실천과제 39번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문화도시에 부영하도록 하겠습니다.'에 따라 그림책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필요한 SDGs 목표 인식 및 공감 확산
 - 지역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원주 버전의 전시를 통해 전국 및 세계 사비로시 문화도시 원주 인지도 확산
 - SDGs 원주 북클럽 17개 책장 제작 및 기후변화홍보관 내 상설 전시



SDGs 그림책 발간

이 그림책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하고 대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SDGs 그림책 창작워크숍

모두가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6. 깨끗한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SDGs 그림책 워크숍 -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까지'

활동가 역량강화과정을 그림책창작워크숍을 통해 운영

이달 그림책 창작 워크숍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까지' SDGs 그림책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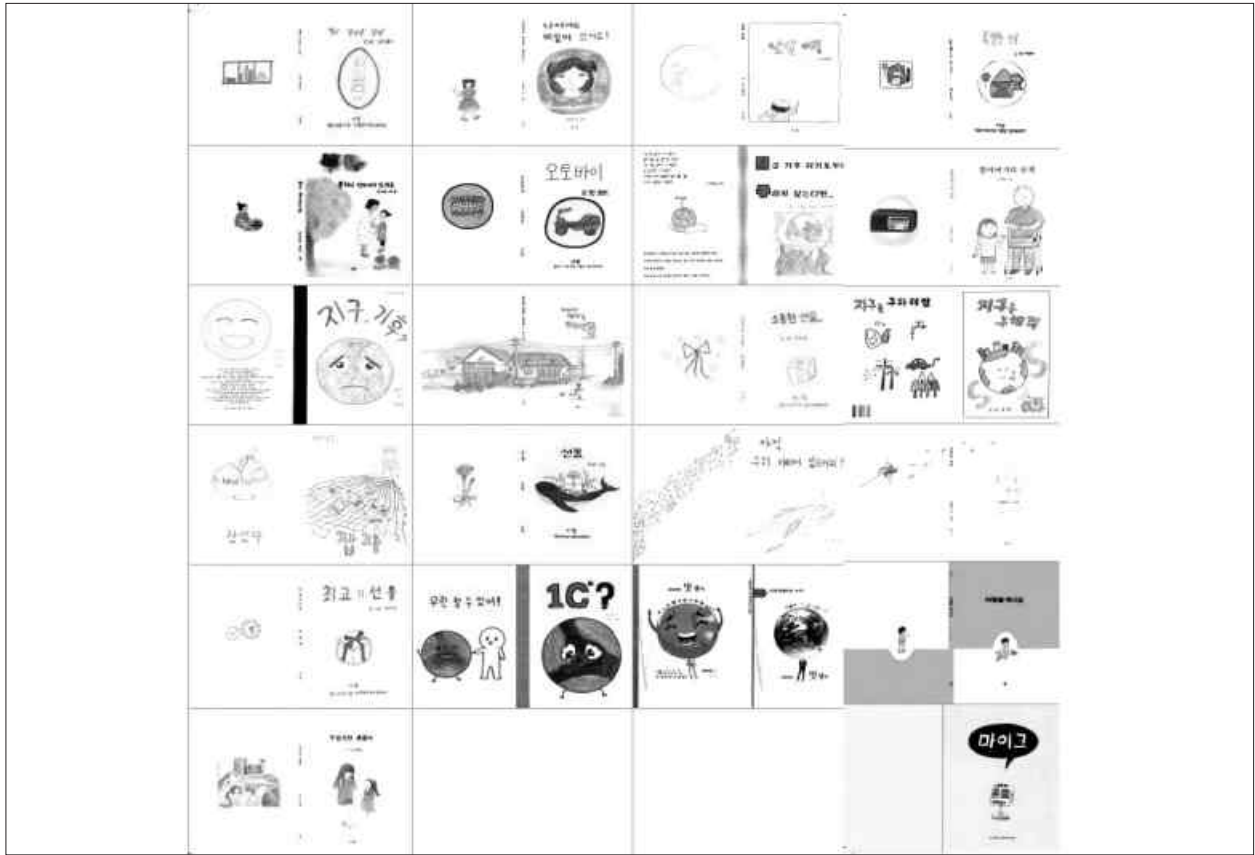
그린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그림책 창작 워크숍

- 대상: 그린리더 중 그림책 창작에 관심 있는 10명
- 기간: 6. 23 - 8. 25 (10강)
- 장소: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 강사: 이지유 작가
- 7명 수료



"기후변화홍보관에서 해설사트 제오의 일정을 시작한 나에게 그림책 워크숍은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그림책 수업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그림책 워크숍 덕분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갑니다.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앞으로 멋진 기후변화홍보관의 해설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강생 정순일



SDGs 기반 그림책+문화+예술+교육 '플래닛(Planet) 프로그램'

'행동하는 생태환경 교육'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그림책 작가와 활동가가 함께 풀리시럽 운영



SDGs의 17가지 목표 중 환경과 연결된 부분을 플래닛 프로그램에 담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류로부터 시작된 보편적인 문제들, 환경 문제들을 인류의 손으로 다시 거두기 시작했고 플래닛 프로그램도 지속 가능하게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원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원주 전역으로, 강원도,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로요. 막막했던 워크숍 첫날의 공기를 가르고 차곡차곡 쌓이는 아이디어들로 프로그램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학교로 찾아가 실천에도 흔들림 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준 열 명의 선생님들과 프로젝트를 운영해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박수를 보냅니다. **한성민 작가**

플래닛랩 프로그램 운영 과정



아카이빙 및
프로젝트
과정 관리



3. 방식의 고민 - 당사자 라이프스타일 기반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 문화도시 81 실천과제 X SDGs 학습공동체

문화도시 81 실천과제 X SDGs 학습공동체 타이틀

지속가능한 토요일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08.01 ~ 08.11
활동기간 08.13 ~ 09.03

도AIMA 지속가능한 토요일 모임을 준비!

활동 기간
2022년 08.01(월) ~ 09.03(일)
*2022년 08월 14일(일) 휴무

모집 대상
청년(20~34세) ~ 청년(35~44세)
*청년(45~54세)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2022.08.07(월) ~ 08.11(목))
신청서, 포트폴리오 제출 후 면접

활동 장소
원주·정선·양양군청 등 활동 지역

원칙
1. 활동시간(10:00~16:00) 준수
원주·정선·양양군청(033-258-8618)
2.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활동 혜택
1. 수당 지급
2. 활동시간 외 식사(3명 분량)
3. 활동 중 여가시간에 해당

문화도시 81 실천과제 X SDGs 학습공동체 타이틀

지속가능한 토요일 활동 내용 모집

모집기간 08.01 ~ 08.11
활동기간 08.13 ~ 09.03

일/월	시간	주제	장소	
8/13(목)	10:00 - 12:00	1. 오리엔테이션	원주시청소년수련관	
	13:30 - 15:30	2. 아카데미극장을 통해 살펴보는 시민운동과 시민자산화의 사례	아카데미극장	
	16:00 - 18:00	3. 지역산 산책과 함께 살펴보는 지역의 산 생태계	지역산 생태길	
8/20(목)	10:00 - 12:00	4. 언어 속 불평등 찾기 워크숍	원주시청소년수련관	
	14:00 - 16:00	5. 동물권부터 기후위기까지, 비거니즘의 개념과 활동 사례		
8/27(목)	09:00 - 18:30	강릉 스타디 투어	6. 생태친화마을 활동 사례	내일상회
		7. 지속가능한 여행 활동 사례 및 프로그램 체험	파랑달 협동조합	
9/3(목)	10:00 - 12:00	8. 보드게임 공헌서비스를 활용한 협동조합 만들기 워크숍	전일마을	
	14:00 - 16:00	9. 종합 토론 및 수료식		

*참가료 무형 및 협회 이사 제외



#지역의 공간 및 콘텐츠와 연결

#투어 #탐방 #워크숍 #강의

#네트워크 형성

→ 청소년과 청년이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그려냄

라이프스타일 in 원주

삶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변주로 만나는 SDGs 프로젝트가 필요

점을 잇는 스타일 원주테이블

36만 5천개의 문화도시 원주
우리들의 다양한 '살아가는 모습'이 '원주테이블'과 함께 반짝반짝 빛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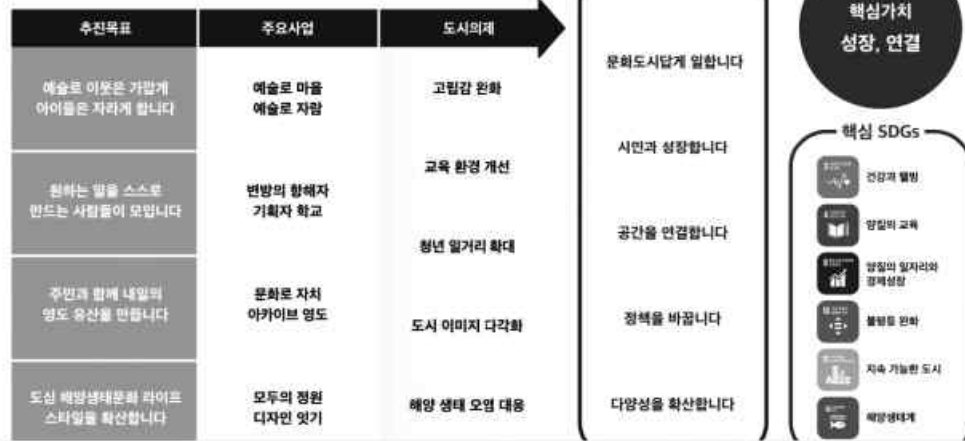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 | 인가구 | 도시하루여행 | 36.5도시 | 펍투어 | 마을 | 불매원주 | 챌린지 | 공유지도 | SDGs 학습공동체
도시연대 | 행정운동회 | 전국문화도시협의회 | 여성기획자 넥스트 스테이지 | 창의도시
도시경제성 | 저항실천 | 생명존중 | 일상예술 | 포용성장 | 소통공감 | 협동나눔 | 도시경제성 디자인
문화예술교육 | 교사지원단 | 이오 | 멜팅팟 원주 | 지역리서치 | 플래닛 | 마을교재
81 실천과제 이행점검 | 문화도시 81 실천과제 이행점검 | 의제실천점검 | 지역자원연결 |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문아리 공간 | 진달래홀 | 공간기획반 | 터섬 3팀 | 아카데미극장 | 도시예술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 점점 | 원주롭다 |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청소년 만짓하는 청소년 | 기관협력 | 철학 | 전지적 참견시점 | 권리대화 | 청소년 선언
시민문화+콘텐츠 | 그림책도시 | 시민전시기획 | 중천 | 책으로ON | 옥상영화제 | 원터플라디오 | 사회적경제



막걸리 원액은 몇도일까요?

| VISION |
 사람-자연-역사가 문화로 이어지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 MISSION |
도시 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합니다



추진전략 01 문화도시답게 일합니다

전 사업에 SDGs 목표 코드제를 시행합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 추진 사업에 SDGs 목표 코드제를 부여할
 메인-전략-기반 코드로 구성



[메인]	[전략]	[기반]	추진 사업
SDGs 코드(메인)	SDGs 코드(전략)	SDGs 코드(기반)	
4. 양질의 교육	9. 지속가능한 산업 구축	17. 협력 강화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구축

학습하여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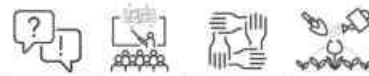
영도별 조직 목표 수립 후 반기별 조직 평가 추진. 각자가 브랜드가 되도록 직무형
 조직 운영, 말의 가치와 동료 관계 증진하고 일문학과 실천하는 기획집단 추구

[영도문화도시센터 역량생활 우선순위]

- 1순위. 내가 맡은 일이 지극히 가치
- 2순위. 조직이 지극히 다름
- 3순위.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출처 | 2022년 6분기 조직평가

[학습 방식]



- '학'하는 질문을** 공유합니다 (Inquiry-based learning)
- '합'하는 학습하고** 기록합니다 (Collaborative learning)
- '함'하는 파트너십** 서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Partnership)
- '지속가능성'을** 형성
부여합니다 (Community learning)

[조직 방식]

- 조직 구조**
브랜드 사업 담당, 리더와 개인
성장 중심, 주도성에 근무
- 일터 문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프로젝트제
일터, 주 1회 이상 근무

사회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모든 사람 추진 시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고려, 유니버설 환경 확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업무 추진 매뉴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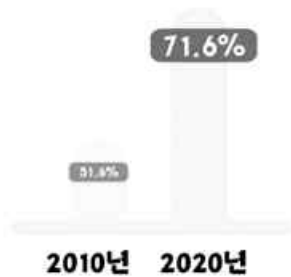
영도문화도시센터

-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
업무 추진 가이드
- 문화 불평등 문제를 위한 모두의 도시
업무 추진 가이드

영도문화도시센터 | 40



**원주 1인 가구 10년 새
31.6% ▶ 71.6% 증가**



반국동 "다베리하트"
여성 1인 가구 모임
〈우화한 살롱 : 초여름 밤의 꿈〉

우산동 "청년금융증강 동아리"
남성 1인 가구 모임
〈홀.아.비 : 황홀한 나의 집〉

중앙동 미로시장 "공유주방 미로주방"
비건 식단으로 취향과 맛을 넓히는
원주비행 〈비건요리워크숍〉

도시아루어행 원주비행
1인 가구 투자 연계 프로그램

1인 가구를 위한 재무관리 강의

일정: 2022.06.11 (화) 저녁 7시
장소: 원주해당동(금매역)신당동 원주테크노센터 1층
대상: 원주에 살고 있는 2030대 1인 가구 30명
참사: 이음재무컨설팅 이태환 대표

내용: 01. 현명한 수입지출관리와 1인만의 투자유망시스템 만들기
02. 자산유동성 확보와 시가이익 관리를 알아야 할 3대 세금
03. 부동산 투자가로 알아보는 부가소득 특성도 안면
04. 원주에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내용과 세금 매기는 방법

도시아루어행 원주비행
1인 가구 투자 연계 프로그램

1인 가구를 위한 홈스타일링 강의

일정: 2022.06.25 (토) 저녁 7시
장소: 원주해당동(금매역)신당동 원주테크노센터 1층
대상: 원주에 살고 있는 2030대 1인 가구 30명
참사: 마들리앤(마들리) 안민진 대표

내용: 01. 홈스타일링을 1도 몰라도 할 수 있는 내 취향 찾기
02. 일상적인 용품이 원거 아쉬운한 데코로 그 표현법
03. 마들리만의 시스템 컬러 조합을 위한 컬러링 메뉴
04. 홈스타일링도 인테리어! 원주에 꼭 필요한 3대 필수품 소개
05.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땐 실수를 줄이는 법
06. 예쁜 소품가다 주는 원주인 유품
07. 1인* 100가구 넘게 컨설팅하며 알게 된 원주하고 가깝게 좋은 거구, 소품 구하기



SDG Compass

The SDG Compass provides guidance for companies on how they can align their strategies as well as measure and manage their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SDGs.

The steps

Our planet faces massiv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To control the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define global priorities and aspirations for 2030. They represent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eliminate extreme poverty and put the world on a sustainable path.

WONJU
City of Literature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9

사람들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에서 도시들의 결정적인 역할은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에서 승인되었으며, 그것은 그 17개 과제들 속에 도시들과 인간 정수를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특수한 목표를 포함하며, 이런 맥락에서 행동을 위한 본질적인 시대대들 중의 하나로서 문화와 창조성을 확인한다. 문화와 창조성이 매일의 생활에서 살려지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 수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점을 갖고 문화산업을 자극하고, 창조를 지원하고, 시민과 문화적 참여를 촉진하고, 공식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적 담국이 사적 부문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차이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 요구에 걸맞은 더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6개의 지역 및 국제적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SDGs} 및 새로운 도시 아젠다^{NUA}에 부합하는
실재적이고 확장 가능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원주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체계

해당 도시가 창의성을 지속가능개발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향후 실행하고자 하는 주요 이니셔티브와 적절한 중기계획(4년)에 대해 서술 서술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강령(Creative Cities Network Mission Statement)에 기술된 목표와 활동분야에 부합해야 하며, 작성 전 해당 강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사업계획과 이니셔티브는 현실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및 새로운 도시 아젠다에 부합해야 함

이론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활동계획들을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계획 중인 핵심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권장함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para la Educación,
la Ciencia y la Cultura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науке и культуре

منظمة الأمم المتحدة
للثقافة والعلم والتعليم

联合国教育、
科学及文化组织

발신 : 유네스코 사무부총장
수신 : 위정숙 원주시장님
날짜 : 2019년 10월 31일

위정숙 원주시장님께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제출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 원주시를 문화 창의도시로 지정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창의도시 가입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원주시의 창의도시네트워크 멤버십(가입신청)은 4년마다 재확인하는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사명을 도시가 얼마나 인식되도록 추진하는지를 보고서는 표현해야 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 혁신적인 이니셔티브, 평생적 부분을 포함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원주시가 기여하길 원다면 매우 솔직하게 쓰길 바랍니다. 창의도시 사무국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친구가입도시로서 원주시가 더 문화회원도시와 활발히 교류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네트워크 내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네트워크에 통합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불어, 모든 회원도시들과 함께 원주시가 유엔(UN)의 '17개

시 장

가된 결정을 위한 2030 아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시의 미래발전전략과 계획의 핵심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함께, 원주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특히 11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달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원주시가 네트워크에 지원하여 실시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주시장님과 원주시의 창의도시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협력담당자가 현중 계획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총회와 같은 네트워크 내의 공동 이니셔티브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주시의 혁신적인 사고와 함께 네트워크 가입을 축하하며 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포함한 원주시가 다른 도시들과의 연대를 잘 맺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네스코 직통에 피기하여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명품과 모교를 사용할 때는 네트워크의 명비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지정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책임 연락담당자가 사무국에 연락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원주시의 특별한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의 창의도시들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모두 함께 화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 에르네스토 오토네(Ernesto Ottone, R.)



우리는 문화 간 이해, 관용, 상호 존중 및 세계시민의식과 공동의 책임 윤리를 육성하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세계의 자연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정적 조력자 라는 점을 인식한다.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새로운 도시의제』는 문화와 문화다양성이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도시와 인간정주, 시민이 발전 과제에 적극적이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책임 있는 자원 활용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문화는 포용적 사회 및 경제 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조화, 평화 및 안전을 촉진하는 지속가능성의 조력자(enabler)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동인(driver)

'Culture as a Goal in the Post-2015 Development' 아젠다 발표, FACCA IFCCD 등, 2013

① 문화, 권리와 시민권 ② 지속가능발전의 문화적 요인 ③ 지방정부의 특별한 임무 명시, 문화와 발전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임무를 총 9가지 영역으로 제안

'Culture21 Actions : Commitment on the role of Culture in Sustainable Cities', UCLG, 2015

SDGs 지역화의 목표 :

국제사회가 규정한 최소한의 규범을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이행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것

문화도시를 통한 SDGs의 지역화와 이행 방안 모색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문화도시

'The last is the first' / 불평등은 잔인한 사회를 만든다 : 도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문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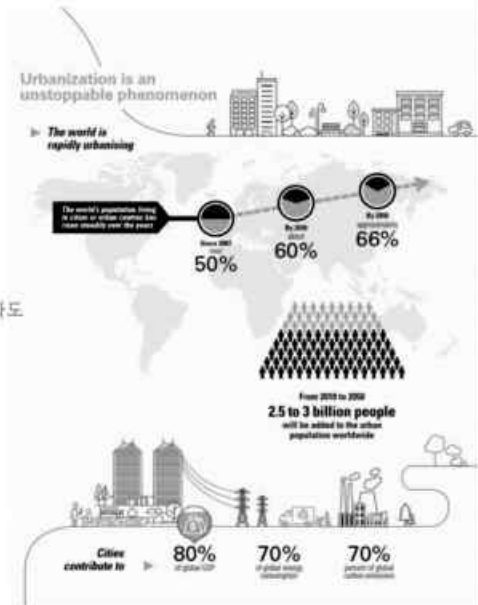
사람 중심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문화도시

모든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한 문화도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지향

실제 세계에서의 변혁적 실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도시

불평등과 혐오, 불신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대와 협력 : 시민 거버넌스로서의



UN, 2018 Tracking Progress Toward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SDG 11 Synthesis Report, High Level Political Forum 2018



문화생태계를 존중하는 도시, 삿포르

민진경 북해도교육대 이와미자와캠퍼스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준교수



- 삿포르시 문화예술 창조활동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
- 일본문화정책학회 이사
- 일본음악매니지먼트학회 이사
- 일본 문화청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외 문화정책 등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보고서」(한국담당)



문화생태계를 존중하는 도시, 삿포로

- 2022년 12월14일
- 북해도교육대학이와미자와 캠퍼스 예술문화정책연구소
- 민 진 경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세계 어느나라, 어느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삿포로 문화예술계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예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 직면해, 상실감에 젖어 사고가 정지된 채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관성에 젖어 할 수 없었던 문제점 해결에 도전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이용할 것인가.

아마도 이 선택권은 세계각국 어느 지역에게도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에 판단은 각각의 지역에 맡겨져 있었고, 선택한 길에 책임을 져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뒤 따르지만 삿포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문화생태계의 특성을 살려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삿포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COVID19 2020년 7월까지 상황

- 4/16 긴급사태 선포 대상이 일본 전지역으로 확대
5/25 비상사태 선포 전면 해제
- 6/12 제2차 추경 통과.
문화예술활동 긴급종합지지원 패키지(560억엔, 스포츠 포함)가 예산화.
- 7/10 문화청 문화예술활동의 계속지원사업 보조금 제1차 모집
7월까지 국가차원 문화예술 관련 긴급지원은 전무
- 5/20 삿포로시는 무관중 공연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배포하는 활동에 관해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 50건정도

지원받을수 있는 예술장르는 한정적!
지원 수도 상당히 적음

문화예술활동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를 자발적으로 실시

-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 피해현황를 파악하기 위해
삿포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15명이
연대하여, 민간 주체 실태조사를 행함
- 기간 : 2020년5월19일부터29일까지
- 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 유효응답수 : 개인938건, 단체 164건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공개 → 삿포로시 문화부에 정책제안 제출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한 5개의 정책제안 내용

1. 삿포로시 문화부내에 문화정책의 공론의 장과 네트워크 조직발족이 필요하다.
▶ 삿포로 문화예술 미래회의가 만들어짐
2.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상담창구 ·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
3. 문화예술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 삿포로시 문화예술활동재개지원 사업이 만들어짐
4. 창조활동 장려금등, 창작활동을 위한 활동기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5. 환경에 맞게 새로운 창작수법을 실험할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관계자 네트워크 조직인 삿포로문화예술 미래회의 발족

삿포로문화예술 미래회의 발족과 관련한 정책근거

「문화예술 의견 교환 체제」 에 관한 조례 규정

- 「삿포로시 문화예술 기본조례」 제10조에 「시는 시민, 예술인 등 문화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등의 자유로운 발상이 문화예술 진흥에 필수적인 것임을 감안하여 시와 이들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서로 자유롭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마련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삿포로 문화예술큤래회의 설치 요강 제정

● 삿포로시 문화예술 기본 조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 서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체제 청비를 마련한다.

● 삿포로 문화예술큤래회의 설치 요강

삿포로시 문화예술기본조례(2007년 조례 제12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 예술인, 문화예술활동단체 등과 자유롭게 솔직하게 삿포로 문화예술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삿포로 문화예술큤래회의(이하 '미래회의'라 한다.)를 설치(제1조 삿포로 문화예술큤래회의 설치요강에서)

삿포로 문화예술큤래회의 개요

- 문화예술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의 문화예술에 관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시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의 장

- 기간 : 2020년11월~2022년2월(1년4개월)

총10회 개최

1회당 3시간

삿포로문화예술미래회의와 삿포로시 역할(2020년 11월 현재)



삿포로 문화예술미래회의의 위원 명단(14명)

- | | | |
|-----------|----------------------------|------------------------------|
| • 伊藤 千織 | 伊藤千織デザイン事務所 代表 | 디자이너, 디자인사무소 대표 |
| • 漆 崇博 | 一般社団法人A I Sプランニング 代表理事 | 아트 코디네이터, 문화예술 매니지먼트 대표이사 |
| • 大友 恵理 | 社会福祉法人ゆうゆう 芸術文化推進室 学芸員 | 학예연구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 • 尾崎 翼 | 株式会社アクトコール株式会社 代表取締役 | 무대감독, 무대기술회사 대표 |
| • カジタ シノブ | インタークロス・クリエイティブセンター ディレクター | 아트 프로듀서, 미디어아트센터 디렉터 |
| • 木野 哲也 | ウタワカンパニー株式会社 代表 | 문화기획자, 문화기획 회사 대표 |
| • 古家 昌伸 | 元北海道新聞記者 | 신문기자, 홋카이도신문 |
| • 小島 遼子 | 株式会社tatt 代表取締役 | 연극프로듀서 겸 배우, 연극배우 매니지먼트회사 대표 |
| • 酒井 秀治 | 株式会社SS計画 代表取締役 | 지역만들기 컨설팅, 컨설팅회사 대표 |
| • 佐久間 康真 | 市民委員 | 대학생, 시민위원 |
| • 八橋 美衣子 | 札幌フルーツ協会 副会長 | 음악가, 프루트 협회 부회장 |
| • 岡 銀京 | 北海道教育大学岩見沢校 准教授 | 문화정책연구자, 대학교수 |
| • 森嶋 拓 | 北海道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普及委員会 委員長 | 댄스프로듀서, 콘텐포러리 댄스위원회의 위원장 |
| • 山本 雄基 | 画家 | 미술가, 현대미술 |

1. 40대 위원이 반 이상을 차지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로 폭넓게 구성
2. 문화기획자, 프로듀서 등이 80퍼센트를 차지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장르 활동가를 집약

제1회 삿포로 문화예술 미래회의 의제

- 제1회 회의전에 문화예술 미래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삿포로 문화정책 현황과 과제에 관해 사전조사를 실시

【3개 과제가 추출】

- 1.연계와 분야횡단의 공론장이 부족
- 2.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사업 부족
- 3.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발신과 기회 부족

1. 연계와 분야횡단의 공론장이 부족(위원들 의견 일부발췌)

<p>·행정부서간의 연계</p> <p>·"미래"를 생각하는 회의인만큼 문화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 접근이나 협력을 재촉하는 협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p> <p>·문화를 담당하는 사람이 문화부만에서만의 제한을 해경하기에는 너무 좁을 수도 있다."문화력"을 시명생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 부서 내에 담아 놓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넓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p>	<p>행정관계자와 문화예술 현장과의 연계</p> <p>문화 활동 현장, 공무원, 예술 문화 재단 관련 사업자 간의 괴리가 있고, 공적 기관과 민간 활동자가 함께 하는 회의나 의견 교환의 장이 없다.</p> <p>담당 부서가 현장에 발문해 직접 보고 듣고 표현자나 활동자와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p> <p>예술인과 공무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어 예술인 문화정책에 관심을 갖지 못함, 예산을 짜는 공공부서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p>
<p>·문화예술 분야 · 업계간의 연계</p> <p>·예술인, 제작자, 콘텐츠, 콘텐츠 유통자간의 서로히친 장드나 문화의 교류의의 있는 노력이 없다. 앞으로 희망해도록 문화를 포함한 방송, 네트워크, 창작방 필요하다. 특히 예술인도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 그리고 타지역의 활동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p> <p>연계하는 의식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술의 과세나 정책세연도 손쉬운가 시명선다. 생각한다.</p> <p>삿포로 국제예술제, SCAFFOLD, 전천아트스튜디오에서와 주력사업은 통해 교류기회가, 축적인 지식과 노력무엇을 공유해가 바란다.</p>	<p>·타분야 전문과의 연계</p> <p>·이러한 회의에서 각 분야의 분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는 의미에서도 매우 의미 있고 자극적인 일이다</p> <p>이러한 공존의 상에 의료 현장, 문화이나 김영병 전문 분등이 함께 참여하면 문화예술 이외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p>

【취지】

삿포로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공유하며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정책을 검토, 제안한다

그렇지만, 현실 벽은 예상보다 높았고
시급한 의식개선과 각오가 필요했다!

【원인(추측)】

문화예술관계자 :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된 경험이 없음

공무원 : 문화예술관계자가 정책을 논하고 새로운 프레임의 정책제안을 받은 경험이 없음

제5회 삿포로 문화예술미래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인 관점의 새로운시책 검토

●제1그룹

【신종 코로나 대응 문화예술 긴급지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 프로그램 (아우리치)
○감염병 대책에 관한 어드바이저 제도, 공연인증제도(삿포로 방식의 공연 실시에 관한 컨설턴트 설치 등)
○삿포로관 아티스트뱅크(데이터베이스)
○상담창구(다른 창구와의 제휴 등)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발표 전 단계의 리서치에 대한 지원 등)

【문화정책 (대상별 타분야 연계 사회과제)】
○중년(10년 이상, 35세 이상) 예술인 지원
○'중간' 인재 육성과 경력 향상 지원, 연수제도
○아우리치의 질을 높이는 지원(합숙 연수제도 및현장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등)
타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과제해결형 지원금 제도(자치단체측으로부터 과제 제시에 의한 자립 공모 등)

【공동 과제】

○ 발표나 연습 기회 장소의 감소
○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보러 가기 어렵고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하고있다
○ 예술인들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나 중간인력 부족
○ 아티스트의 상담처 부족 또는 기존 상담창구 홍보 부족
○ 제한이 완화된 지원금 제도(대상 연령 확대, 창작 단계 대상 등)

●제2그룹

【신종 코로나 대응 문화예술 긴급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생업으로 지속하기 위한 지원(기존 문화예술 이벤트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재개 지원 사업의 분석, 유연적인 활용을 위한 검토(프로세스에 대한 유연한 지원 등)
○ 신청 절차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담 창구'
○교육현장에서의 견습, 비상근인력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이드라인 제시
○ 애프터 코로나로 연결하는 제도 구조

【문화 정책 (대상별 타분야 제휴 사회 과제)】
○자세대형 문화예술활동, 투자창조-메세나 활동 지원, 예술비평 활성화 지원(예술비평 공모전 등)
○문화의 저변과 전문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교육과 문화의 새로운 연계 시책(아우리치 등)
○표현 창조활동을 창출하는 마을의 장 구조 만들기

●제3그룹

【신종 코로나 대응 문화예술 긴급지원】
○ 자원급 신청 절차 간략화(신청자부담 경감 등)
○창작활동(프로세스)을 유지시키기 위한 공공시설의 유연한 활용
○향유자측에 문화의 소중함과 안심감을 전하는 가이드라인 정보 발신(문화예술을 필요불급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 문화예술 신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실시 지원

【문화정책 (대상별 타분야 연계 사회과제)】
사회 속에 새로운 창작 표현 활동 필드를 만들기(아우리치나 워크숍을 배우는 스쿨 등)
○복지, 돌봄사업에 아티스트 파견사업
○ 예술인 창작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 구조정비
○메니지먼트 인재 육성
다양한 장르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
○ 기타(홍보 시스템 제공, 기존 사업의 평가 검증등)

【공동 아이디어】

○아우리치(대상 : 학교, 복지시설, 돌봄교실 등)
○아티스트나 단체의 리스트 작성 및 활용
○상담 체제 강화, 상담 창구 홍보, 활용 촉진
○ 아티스트 창작활동 지원, ○중간지원단체 인재 조직 육성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삿포로시 가이드라인

제5회까지의 토론내용을 수렴하여
제6회 삿포로시 문화부에서 정책을 제시

•市内におけるアウトリーチの普及・活性化事業



위원들 : 납득불가,철회요구

삿포로 문화예술미래회의 획기적인 점

삿포로시 행정기관 - 문화예술 미래회의 대등한 관계

행정기관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책임감이 부가되었다!
위원들 스스로 새 문화정책을 만들어만 하게 되었다!

위원들은 더욱 신중하게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삿포로에 필요한
문화정책을 검토하기 시작

그후 샛포로 문화예술 환경에 관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토론

제8회 샛포로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주요 과제가
명확해짐

- 민간 문화예술 활동(예술인 개인 포함)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적음
 - 아트매니지먼트 인력이 적음
 - 중간지원 조직이 적음

**새로운 문화정책
샛포로시 문화예술창조활동지원사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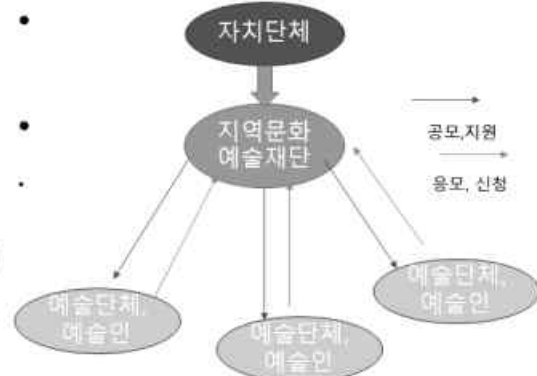
삿포로시 문화예술 창조활동 지원사업 획기적인 점

일반적인 보조금,지원금 흐름 1



예술단체와 예술인등은 자치단체가 검토한 정책에 의거한 지원사업에 신청한다.

일반적인 보조금,지원금 흐름 2



예술단체와 예술인등은 문화재단이 제시한 지원사업에 신청한다.

【현행 지원제도등의 문제점】

- 삿포로의 문화 생태계가 안고 있는 과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지역사회 있어서의 문화 예술 역할은 복잡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삿포로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와 아티스트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원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활동의 현장을 알고 아티스트 등의 현상이나 요구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단체·문화재단과 예술가·예술단체는 빈번하고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지만, 양자가 사용하고 있는 틀은 서로 다르며, 게다가 양자의 거리는 너무 멀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정한 행정규칙에 의거한 지원사업으로만은 해결의 한계가 있으며 기존 지원제도의 틀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유로운 발상으로 예술인 등의 현장 또는 지역주민 가까이에 있는 민간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삿포로시 문화예술창조활동지원사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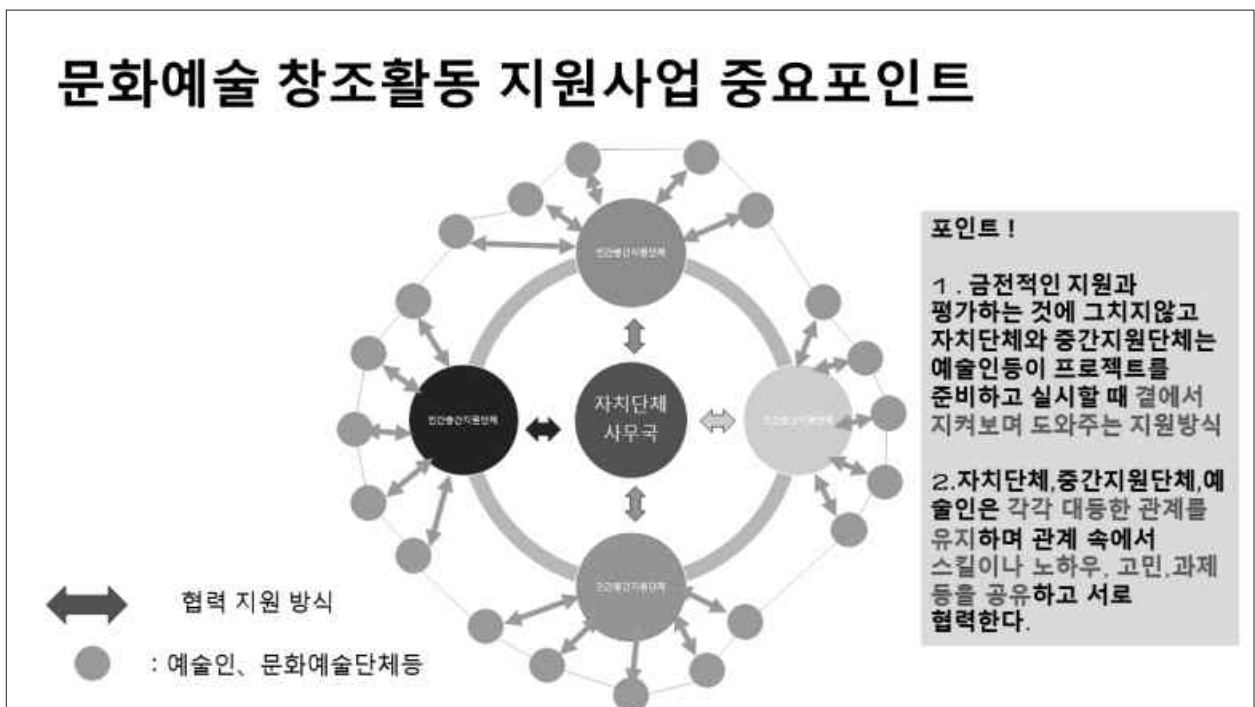
자치단체가 지원사업 방향성의 큰 틀을 정하고 (1. 창조활동 활성화 2. 활동기반강화및 환경개선 3. 도전적 활동지원), 그 바탕으로 민간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응모한다.

채택된 민간 중간지원조직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원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예술인, 예술단체는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 지원받는다.

문화예술 창조활동 지원사업 이미지



문화예술 창조활동 지원사업 중요포인트



삿포로시 문화예술창조활동지원사업의 특징과 전망

· 본 사업은 다양한 사과의 개인이 모여 장기간에 걸친 토론의 결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소중히 여겼기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민간영역의 역할까지 확장시켰다. 이것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영향력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 본 사업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접근하지 못한 세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 중간지원단체가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간지원단체 자신의 신념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삿포로시 문화예술 창조활동 지원사업에서의 개개의 도전이나 경험, 거기서 얻어진 작은결과(변화)들이 쌓여 향후에 삿포로의 문화예술이나 지역사회에 한층 더 다양성(변화)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가능성 관점의 광주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주명옥 광주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기획팀장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학과 박사과정
- 아시아문화개발원 기획운영팀 근무
-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 프로그램 연구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7대문화권 조정계획 연구
- 아시아문화기획 전문인력양성 사업 참여

지속가능성 관점의 광주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성의 도시재생적 해석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22.12.14.

주명옥 (재생기획팀장)



Contents

01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0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지속가능성

- UCCN 아젠다의 변화
- UCCN 가입 이후 많은 도시들이 겪은 문제
- 창의도시 광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04 제언과 마무리

1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유네스코의 2030 아젠다
- SDG11을 위한 도시재생
- 문화적 도시재생
- 논의의 범위

01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유네스코의 2030 아젠다 (UNESCO, Culture for the 2030 Agenda, UNESCO, 2018b)

- 유엔 2030 아젠다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체로서 문화와 창의성에 전략하였으며, 이를 정착한 글로벌 네트워크 UCCN은 유엔의 구상을 실천할 최적 파트너가 될. 본 자료에서는 유네스코 아젠다를 활용
-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지향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을 제시 : SDGs로 지향점을 대폭 수정
-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문화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
- 거버넌스, 운영기제의 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정책을 지향
- 국내, 국제적 협력의 강화
- 구체적으로 17개의 발전 목표와 169개 연관 타겟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

01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 SDG 11



-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 도시와 인간의 정주지역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탄력성이 높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목표
- 포용성을 증진하고 모든 주민이 정의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접근성이 높고, 적정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회복력이 높고, 지속가능한 도시에 살면서, 모두의 번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를 지향
 - 환경적 조화를 동반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일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필수 요소임

■ SDG11을 위한 도시재생

- SDG11을 위해 필요한 것들
 - 안전한 주택과 도시 서비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 문화유산의 보호,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쇠락한 환경의 개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공간과 어메니티의 제공

“ 도시재생은 SDG11을 위한 유효한 수단! ”

01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 도시재생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문화적 도시재생

- 도시의 역사적 특성과 가치를 보존하며 새로운 기능으로 활용하여 지역 자원의 문화적 가치 재평가
 - ① 문화·예술 장르적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 ② 예술가, 기획자들의 적극적 참여 또는 주체가 되어 도시재생을 추진
 - ③ 문화·예술의 본질적 요소인 창의성의 발현을 통한 창조적 혁신으로 도시를 재생
-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 공공장소 재개발, 역사적 문화적 장소의 정비, 신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의 문화활동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교육, 지역 예술인들은 재능을 발휘하고 타 지역 예술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도시재생 전략”

01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 논의의 범위

1.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시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사례 중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 생태적 요소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식 전환 : 사회적 요소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 : 경제적 요소

2. 도시재생으로서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 광주의 도시재생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과 밀접
 - UCCN 아젠다의 변화
 - 광주의 창의도시사업은 정말 Sustainable 한가?

3. 지속가능한 문화중심도시 광주

-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
- 문화중심도시,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적은 제한 몇가지



6

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1 동구 13개동 마을사랑채 조성

- 주민들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소통, 나눔, 문화의 공간으로 마을사랑채 조성(7개 조성완료)
-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현안을 해결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공유부엌, 다목적실, 책정원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플랫폼 역할
 - 옥상정원, 소규모 텃밭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고려한 건축설계 반영



8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1 동구 13개동 마을사랑채 조성

- 마을사랑채는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작용



9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2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재생



• 동구 연문학당 : 철거 위기의 근대가옥을 연문도시 사랑방으로 리모델링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2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재생

• 다목적 음악여행, 기후법상, 영화인문학 극장, 동구다실, 동네영인 프로그램



동구인문학당

연문학당

상반기 프로그램

2022. 4월 - 8월

주소 동구 연문학당

연번	프로그램명	일부	시간	신청방법
1	다목적 음악여행	4.15(수) 4.22(수) 4.29(수)	18:00 - 20:00	링크 신청
2	기후법상	4.14(수) 7.11(수) 7.18(수)	18:00 - 20:00	링크 신청
3	영화인문학 극장	4.14(수) 6.20(수) 7.18(수)	18:00 - 22:00	링크 신청
4	동구다실, 문화여행	4.15(수) 7.22(수) 7.29(수)	18:00 - 20:00	링크 신청
5	동구다실, 문화여행	5.12(수) 7.29(수) 8.5(수)	18:00 - 20:00	링크 신청
6	동구다실, 문화여행	6.19(수) 8.5(수) 8.12(수)	18:00 - 20:00	링크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3월 28일(수) 18:00 ~ 4월 15일(금) 18:00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2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재생

- 60년 전통의 향토호텔, 영업을 종료된 호텔 객실을 활용한 호텔아트페어
- 유휴공간을 활용한 장소특정적 문화예술 프로젝트 (작가미술장터 개최)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2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재생

- 예술가들의 아지트 카바레를 모티브로 한 '게림카바레'(폐업한 유흥주점 재생 프로젝트)
- 수공예 중심이었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로컬 책 큐레이팅,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2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재생

-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임차료, 상품개발비 지원 10달 창업)
- 계림동, 충장로 등 빈집, 빈 점포 활용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14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2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재생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3- 친환경 자원순환시범마을 조성

- 자원순환에코센터 : 자원순환 교육실천 플랫폼으로 광주 최초 탄소제로건물 조성
- 재로웨이스트 커뮤니티 매핑시스템 구축을 통해 쓰레기 제로 마을만들기
- 도시 기후 탄력성 강화사업, 인공지능 재활용회수기 설치, 스마트 거점수거 체계 구축, 자원순환 활동 마이리지 부여



01.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

① **쓰레기 없는 마을 소통시스템 구축**
쓰레기 분리를 친하게 하자!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청정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방방항 소통시스템 개발로 우리 마을 실시간 쓰레기 발생·처리 현황을 파악 실시간 데이터 공유

② **복합한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EBSI) 3-4호사별차기
쓰레기는 골고루 배출을 높이고 깨끗한 마을만들어요.

- 1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
- 2 우리동네 환경관리사 운영
- 3 청결하고 편리한 수거할 일지
- 4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물 처리(미생량기) 설치

02. 기후변화 대응

① **무분마을 만들기**
(EBSI) 1호구 신수리동 3-1호, 신수리동 3-1호, 무분마을만들기

우리동네 너무 더워요~ 너무 심어 도시 숲을 조성하고 도로에 시원한 쉼터 설치해서 온도를 낮추자구요~

- 도시 일제치하길목공원, 벽면녹화 등
- 열 교환바닥의 도로 포장
- 무분마을 만들기 푸른 숲길 조성

② **마을주민 건강보호 시설 조성** (EBSI) 1호구 사수동 일원
노약자 건강보호를 위해 이용하기도 편리할 수 있는 편의형 공간 마련

바람이 나오는 그늘막 특별 미세먼지 필터 조성

03. 자원순환 교육실천

① **광주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견학** (신수리 501-7 일원)

무분마을에친환경제로 친환경 건물이 생겨요. 농어에서 재활용, 음식쓰레기(카스레시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체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자원순환 체험장 구축
광주 1호구 사수동 신수리동 3-1호에 건립 한시 교육 체험 & 체험시설 운영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 조성

04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 주민참여형 체험 텃밭, 도시농업 정원 조성, 주말농장 운영, 도심 속 팜 파티 등
- '도심 속 팜 파티':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음식을 나누고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분야

01: 초등학교와 연계 기후위기대응 생태문화예술교육

- 장원초등학교(355명), 환곡초등학교(345명)/ 총 40회차 84시간
- 북금곰 예코백 만들기, 나뭇잎 전시회-나뭇잎 예술가
- 우리 마을을 깨끗이(플로깅),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
- 우리마을 생태도감 만들기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분야

02: 재활용 도움카페 '동구라미' 운영

-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장
-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안내
- 재활용 작품 전시
- 투명페트병과 캔 자동회수기를 통해 포인트로 적립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조성

재활용도움카페 동구라미

재활용도움카페 '동구라미(東區라미)'는 자원순환(recycle)을 상징하는 동구라미의 이름 통해 대단히 청아롭고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어가자는 의미

위 치 | 광주 동구 '산수문화마을' (산수동 309-1번지)
이용시간 | 월-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연세문방 중)
 *7월 중 개소식 개최 예정

운영내용 | 재활용 도움카페 1개소, 재활용 자동회수기 2대 운영
 / 재활용 작품 전시
 / 재활용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교육 체험 프로그램 제공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분야

03 친환경 업사이클링 예술교육

- 영유아, 초등학교 대상 에코라이프 교육
- 친환경 수제비누 만들기, 타이백 활용 업사이클링 상품 개발



20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분야

04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 식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연계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 졸업작품 실습 교육을 통한 공동체 정원 조성



21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

01 생태문화관광

- 동구 도심 속 걷기 좋은 '도심건강길' 지정
-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산책길 7곳 지정
-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안전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

동구는
건강도시다

동구 도심 건강길을 소개합니다.

생활속에서 걷다. 동구 도심건강길은.....
동구 도심내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안락합니다. 동구 도심건강길은 7길, 총 196km에 가깝거나 50여분 정도 아쉽게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동구 도심속에서 일상의 건강을 지키고 여유를 즐길수 있는 안락합니다.



02 지속가능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

02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 행복한 쓰임 : 기업의 잉여 원단, 버려지는 옷을 재 디자인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생활용품 제작
- 인그레픽스 : 인쇄업으로 버려지는 지투리 종이를 활용한 색칠공부 책자, 폐목재를 활용한 청사초롱 DIY키트, 페이퍼클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 무등에너지협동조합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 카페 운영 및 스마트 절전 시스템 보급
-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에너지협동조합 및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으로 태양광에너지 보급
- 스키퍼 : 인쇄의 거리에서 버려지는 페퍼레트 활용 업사이클링 가구 및 상품 제작



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지속가능성

- UCCN 아젠다의 변화
- UCCN 가입 이후 많은 도시들이 겪은 문제
- 창의도시 광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0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지속가능성

■ UCCN 개요

- 총 93개 국 29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음('22. 11. 기준)
- 2022 기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 17개 도시
 - 광주는 2014. 12 가입, (미디어아트 분야 전세계 4번째)
 - 가입 당시 국내 4번째 서울(2010), 이천(2010), 전주(2012), 광주(2014), 부산(2014)



MISSION STATEMENT

Mission

Launched in 2004,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aim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nd among cities that have recognized creativity as a strategic fa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regards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y joining the Network, cities acknowledge their commitment to sharing best practices, developing partnerships that promote creativity and the cultural industrie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nd integrating culture in urban development plans.

The Network further commits to supporting the United Nations frameworks, particularly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covers seven creative fields: Crafts and Folk Art, Design, Film, Gastronomy, Literature, Media Arts, and Music.

Objectives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aims to:

-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ities that have recognized creativity as a strategic factor of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 stimulate and enhance initiatives led by member cities to make creativity an essential component of urban development, notably through partnerships involv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ivil society;
- strengthen the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of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 develop hub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broaden opportunities for creators and professionals in the cultural sector;
- improve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s well as the enjoyment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notably for marginalized or vulnerable groups and individuals;
- fully integrate culture and creativity into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lans.

■ UCCN 아젠다의 변화

- 창립 초기 문화산업 진흥, 투자와 고용기회 창출, 문화 관광의 확충 등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
- 현재는 시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문화경제의 활성화 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공간 의 참여 증대 등의 포용적 의제를 강조
 - 초기의 산업적 지향 (문화산업의 진흥과 투자고용기 회 창출, 문화관광의 확충 등)에서 점차 문화적, 포용 적 지향으로 아젠다를 수정

0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지속가능성

■ UCCN 가입 이후 많은 도시들이 겪은 문제

- 가입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와 문화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보다는, UCCN 가입 자체가 목적으로 전략
 -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로 인해 시민주도의 문화 예술활동 증진이라는 취지가 흐려진 사례
- 시민을 문화예술 전문가가 생산한 성과품의 소비자로 인식하여 도시문화정책의 대상으로만 취급

“...희원도시가 증대할수록,

희망도시가 증대할수록

세계적으로 문화정책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문화산업에 치중하여 문화생산의 총량적 증대에만
관심이 커지고,

지역사회 주민의 삶 보다는
도시브랜드와 장소마케팅에 매몰되는건 아닌가...”

■ 창의도시 광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 UCCN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강화
 - ⇒ 시민의 역량강화가 교육이 아닌 학습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시민이 대상에서 주체로 변화하여야 하며, 문화 자산과 지역문화를 공유재로 인식하여야 함
- UCCN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 ⇒ 창의도시의 본질이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UCCN은 SDGs의 주요 견인차 역할 수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창의도시사업의 적절한 조화
 - ⇒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창의도시의 도시브랜드이나 마케팅을 실현하는 사업이 아닌
 - ⇒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문화권 조성 및 시민문화운동을 통한 도시개조’, ‘시민주체의 창의성에 기반한 SDGs의 실현’ 등 본질에 맞는 사업 발굴과 조화

26

0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지속가능성

■ 주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시설

광주 G.MAP (Gwangju Media Arts Platform)



칼스루헤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린츠 AEC (Ars Electronica Center)



앵겔레벡 CDA (Centre des Arts)



27

4

제언과 마무리

04 제언과 마무리

■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도시재생

- 문화적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임
 - 도시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문화의 저장과 전파, 교류와 창조
 - 문화와 창의성에 바탕을 둔 문화적 도시재생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

“문화와 예술의 본질적 요소인 창조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성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란

- 자연과 문화, 환경과 도시의 조화를 의미
- 파괴되었던 도시 환경을 회복하여 문화와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고 나아가 환경을 비즈니스 차원으로까지 격상시킨 경우들을 고찰할 필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요소)
- 어떤 과정을 거쳐 문화적 진화가 도시의 발전을 형성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창의성과 문화적 발전 사이의 연결고리는 분명해 보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시민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04 제언과 마무리

■ 문화도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 문화도시,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역량 제고
- 시민의 역량강화가 교육이 아닌 학습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주민이 대상에서 주체로 변화하여야 하며, 문화자산과 지역문화를 공유재로 인식하여야 함
- 모든 창의적인 생산물은 시간의 경과와 활동의 전개과정에서 얻은 혁신의 경험

“창의성은 종착역이 아닌 여정이며, 결과가 아닌 프로세스” (Charles Landry)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위한 단상

- UCCN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추진
- 창의도시의 본질이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UCCN은 SDGs를 달성할 주요 동력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의 적절한 조화 필요

30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는 어떻게 지속가능할까?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



- 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기획위원
- 현, 광주시 문화다양성 증진위원회 위원
- 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
- 현, 문체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는 어떻게 지속가능할까?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는 문화영역이 제외되었지만, 목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끈다’는 주장이 크게 부각되었다. 도시에서의 문화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도시개발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경제 성장과 빈곤 경감에 문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문화는 도시의 삶의 질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를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결국 문화를 매개로 작동하고, 문화를 통해 번창하고,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도시이다. 이렇게 보면, 문화도시가 곧 지속가능도시인 셈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도구화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즉, 문화는 단순한 경제적 부의 획득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행복을 견인하고, 창조적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속불가능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태적 요건, 사회적 요건, 경제적 요건 등을 조화롭게 갖추어야 한다(김병완 교수 기조강연). 이러한 것을 전제로 문화적 측면에서 더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단편적인 문화자원의 활용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시설 혹은 인프라 설치 등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인간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로 복원하고 재생하는 문화적 실천이 활발한가?

셋째, 문화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혹은 신성장산업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면서 문화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을 탈피하고 있는가?

넷째,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지속가능한 관광과 연계시켜 공동체 구성원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들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와 지역의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수렴된다.

발표 사례들은?

‘문화도시 원주’의 사례는 도시의 의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해 나가는 중요한 사례인 것 같다. 지역공동체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다양한 문화적 경로를 통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에 문화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삿포로시의 사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 피해 현황을 지역의 구성원이 협력해 파악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주요 요건인 시민참여의 한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문화예술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 이를 정책단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역의 문화예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는 도시재생에서 문화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풀어가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작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주요가치인 문화적 권리와 문화 다양성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지향하고 있는가이다. 문화를 통한 도시계획과 공간 재구성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은 이제 필수요건이 되었지만,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에서 가장 기본적 목표가 되어야 할 문화적 권리와 문화 다양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 사회, 경제와 도시 사이의 조화만이 여전히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문화는 이런 영역들의 목적을 실현하는 기능적 도구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별 도시 브랜드의 추상성과 차별성의 한계,

시민참여 방식보다는 소수에 의한 주도와 역할 과중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당연히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 방식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의미를 담은 도시와 주민의 실질적 변화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인가?

김병완 교수님의 기조강연에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는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요소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기반 위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정의했다. 즉 지속가능도시와 문화도시의 가치 공유가 이루어지는 도시라는 것이다. 이것을 토론자의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한다면, 도시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도시권의 핵심인 ‘도시공간에 대한 평등한 접근’, ‘문화 다양성’, ‘시민참여’ 등이 공통의 핵심 가치가 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정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아주 좋은 ‘규범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발전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도시인 광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토대로 신개념의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통하여 광주에 내재된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인간 중심의 도시, 억압과 소외가 없는 평화·인권의도시, 열린 소통의 도시, 자연을 도구로만 인식하지 않는 환경친화 도시를 지향하고자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복합적으로 사고해야 할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는 문화도시의 계획과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녹색생태환경을 구축하는 것,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와 문화공간의 접근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것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가치를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조성사업 속에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과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광주’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운영의 지속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조성사업을 통해 이룬 문화적 성과를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광주가 자체적으로 확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문화도시 운영적 측면의 역량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 주도적 관점’에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것이다.

핵심거점 시설인 문화전당은 안정적인 체제로 재정비한 것을 전환점으로 삼아, 문화전당의 운영 효과를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도시운영에 관한 책무를 대표하는 광주시가 문화적 기획력과 실행력을 본격 발휘해 나가야 한다. 문화전당의 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고, 광주에서 문화적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조성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문화전당과 조성사업의 효과를 도시전체로 확산시켜가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을 지역 주도적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성사업에서 ‘녹색문화도시’ 목표는?

녹색문화도시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경관과 도시 내 생태문화축을 조성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전략이다. 조성사업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위협 상황에서 문화도시의 대안적 가치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녹색문화도시 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문화도시 환경 조성사업으로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분야와 문화도시 환경조성 분야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생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연차별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의 영역에서는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 마을 숲, 생태공원을 확대하고 이를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점 차원에서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을 대상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자연과 소통하고, 일상의 문화활동이 펼쳐지고, 체험형의 관광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에 의하면, 광주의 미디어아트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 가치를 예술적으로 재현하고,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의 발신자로

활동하겠다는 것을 강조한다.

“광주가 추구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목표는 민주, 인권, 평화 등 인류의보편 가치를 미디어아트에 담아 도시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한다” <‘빛의 실험실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2014)>

계획대로라면, 도시의 외관을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에 미디어아트를 결합시켜야 한다. 즉, 미디어아트를 사회디자인의 관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아트가 소통과 융합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사회혁신적 실천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재생, 시민의 안전, 도시 디자인 등에 미디어아트가 결합되면 도시의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현재와 같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이 빛을 발산하는 장치와 물리적 시설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차원에서 전 세계가 도시의 불빛을 줄여가는 상황과도 배치된다. 광주만의 미디어아트 정체성 확립,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사회혁신, 시민의 상상력 제고 등에 관한 프로그램 확장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토 론 문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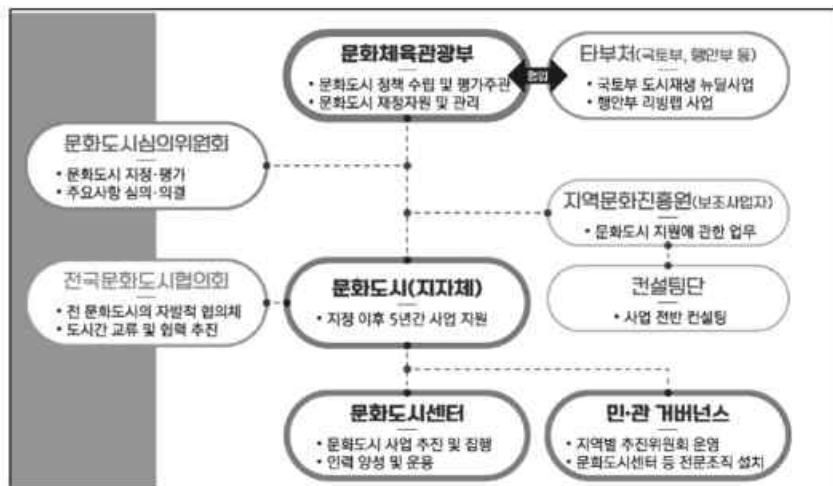
I. 기초강연에 대한 의견

- ‘지속적 발전(시간의 지속성)’과 ‘지속가능발전(체제의 지탱가능성)’에 대한 개념 규정 정리를 통해 새롭게 인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발본적 질문에 공감 →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의미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요소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기반 위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
-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제도 시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과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원칙에 상충되지는 않는지 계획수립 및 수정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전적으로 동의함
- 질문을 통한 논의의 확장 →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3가지 요건 중 ‘사회적 요건’에서 “열린사회의 민주인권 시민의식과 공동체정신이야말로 문화도시의 또 다른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여기에서 다양성과 공동체정신의 가치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임

II. 발제문에 대한 의견

○ 원주 문화도시 사례

- 추진체계 및 민·관 실천거버넌스(원주테이블)이 실현 과정은?



○ 일본 삿포르 문화도시 사례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추진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프로세스의 공통점
- 지자체나 문화재단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 후 의견서 전달
- 삿포르 문화예술미래회의 발족 → 삿포르시 행정기관-문화예술미래회의 대등한 관계 행정기관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정력 발휘
- 문화예술 창조활동 지원 사업에서 중간조직과 문화재단의 역할 차이점?

○ 광주 문화도시 사례

- 문화적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례에 공감
- 일부 창의도시 사업이 “가입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와 문화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보다는 UCCN 가입 자체가 목적으로 전략”했다는 진단에도 동의함
- “창의도시의 본질이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UCCN은 SDGs를 달성할 주요 동력” 그렇다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

III. 제언

- 민·관·정협의체를 회의기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상설협의체로 전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상화시민연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포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관광재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병훈
 - 사업 및 예산안 공유, 참여 가능한 기관의 공동 및 협력사업 수행 등
- 기초강연자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가지 요건(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을 토대로 실천과제와 지표를 개발 제안
- 문화다양성 점검표(기관 담당자, 기획자)를 활용해서 사업의 기획단계, 홍보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검수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

윤 익 미술문화팩토리 아트파티 대표



- 현.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21~22) 총감독(2021, 2022)
- 현. 경주주상절리 전망타워 디지털체험관 연출감독
- 2020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총감독(2020)
-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2009~2019)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

윤 익 (미술문화팩토리 아트파티 대표)

광주광역시는 2014년 12월 1일 세계에서 4번째 도시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에 가입한 지, 올해로 8년이 되었다.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우리 고장 광주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성과이다. 광주광역시는 이후 휴먼미디어시티의 기치로 세계 속의 문화도시,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구도심 중심부인 아시아 문화전당 (ACC), 전일빌딩, 광주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마다 의미 있는 문화예술의 행사를 진행되며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의 창의적 발상을 결집하여 광주의 문화적 자산인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와 문화예술의 빛을 미디어아트와 결합해 우리의 미래적 정체성을 생산하고, 새로운 창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꿈꾸는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예술인들과의 활발한 예술적 교류를 통해 광주를 세계 무대에 알리며 국제 관계에서의 높은 문화예술적 위상을 확립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목적이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도시를 꿈꾸는 우수한 도시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지난 2004년 10월에 시작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목적으로 시작된 국제적 문화예술프로젝트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문화발전의 핵심요소로서 창의성을 주목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 자산과 경험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도시들을 상호 연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초기 창의도시 가입으로는 영국의 에든버러, 미국의 산타페, 독일의 베를린, 이탈리아의 볼로냐, 스페인의 세비야, 프랑스의 리옹, 일본의 가나자와 등이며 창의도시의 분야는 디자인도시, 공예와 민속예술도시, 문학도시, 음악도시, 음식도시, 영화도시, 미디어아트도시 등 7개로 분류된다.

창의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구성원인 시민의 창의성이 지역문화발전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자생성이 산업으로 발전하여 그 성과물들이 도시발전과 시민의 질적인 삶에 활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의 문화적 독창성, 고유성 등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에 까지도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유네스코창의도시의 의미와 목적은 오늘날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고유한 문화성이 현대적

의미의 도시경쟁력의 장점이라는 인식에 기초 하며, 창의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주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형성을 통하여 문화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전의 에너지를 생산함에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현재 전 세계의 93개국, 295개의 회원 도시이며, 매년 수많은 도시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 자격과 혜택을 인정받는 도시가 많지는 않다. 해를 거듭할수록 엄격하고 복잡한 심사를 통해 매년 12월 1일에 신규 창의도시가 발표하며 가입승인 이후에도 5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거쳐 회원 도시의 지속성을 부여한다. 광주광역시의 예를 들면 2019년 5월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재선정의 심사과정에서 유네스코 측은 시민사회홍보의 미흡과 미디어아트 영역을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는 창조성의 확대를 지적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및 국내외에 광주미디어아트창의도시의 입지적 아쉬움과 미디어아트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 에너지가 우리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반영되지 못함을 입증하였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선정을 기점으로 광주광역시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당면과제를 인식할 수 있다. 먼저, 선정 준비과정에서 추진체의 원동력이 되는 시민협의체를 결성하였고,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창립,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추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를 창립하였다. 선정 이후 추진사업으로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사업단 구성,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플랫폼 추진,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광주폴리사업의 광주진입 톨게이트에 미디어아트 파사드 추진, 5개 권역에 창의벨트 조성사업 추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 건립이 존재한다. 자치구별 미디어아트 관련사업 추진으로는 동구 : 5.18민주광장 빛의 분수 추진, 북구 : 비엔날레지구 미디어파사드 추진, 남구 : 백운광장 미디어월 등이 있다.

관 주도형의 기업과 연계하는 문화산업으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며, 현재진행중인 AI중심 산업융합단지 추진, 아시아문화예술인 교류센터 건립, 광주천변 미디어아트 친수공간 조성,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이 정부측과 협의 및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초창기에 존재하던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시민협의체는 유명무실하며 시민 실생활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처럼 많은 사업에 지역예술인들의 참여가 소외되어 생산, 유통,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배려하는 미디어아트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관산학연 협의체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순수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저조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광주의 문화적 자신과 연계하는 광주만의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의 정체성 실현과 발전은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11년간 진행된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현재진행형인 광주미디어아트 창의벨트 구축사업이 존재한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의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지원하였는지 스스로의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 소비지수를 높게 하여 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들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이는 큰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적인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진정한 문화적 뿌리를 내렸다면 시민들과 지역의 예술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와 다양한 기능으로 참여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광주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관련사업이 지역의 미디어아트의 종사자와 인프라를 얼마나 양성했는가에 대한 수치와 성과 분석도 중요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다 주는 지원과는 다른 샘을 파는 기술을 가르치는 미래 투자적 프로그램이 있었는가의 자성에 관한 것이다.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 부분에서도 과연 광주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산에서 독립적일 수 있는지 고민되어야 한다. 글로벌화 된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에 투자 및 지원하는 국내외 관련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성과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관 주도형 사업의 추진으로 공적자금에만 의존하는 예산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에 미디어아트창의도시에 따른 전반적 성과를 제시하여 지속지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과거에 추진되었던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향후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의 발전 방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예산지원의 당위성과 명분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공적 자본을 초월하는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발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과거의 성과와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사업의 발굴과 소통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에는 예술의 도시, 민주화의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빛의 도시이다. 미디어아트는 수단이며, 언어이고 목적을 추구하는 일종의 툴(tool)이지만 때로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우리 고장 광주는 동학 농민혁명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거쳐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와 인권을 밝히는 빛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자부심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광주의 미디어아트는 첨단기술의 융합과 표현기법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나아가,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지역문화와 민족문화들이 상호교류하며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매개도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광주, 비전만 있고 실천이 부족한 '문화도시'

정인서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장



- 무등일보 논설위원
- 시민의소리 이사 겸 편집국장
-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초빙교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광주, 비전만 있고 실천이 부족한 ‘문화도시’

정인서 (광주서구문화원 원장)

3편의 발제문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에게 필요한 비전과 실천방법론을 제시해주었다. 원주의 지난 3년간의 노력, 샛פור의 사례, 광주 동구의 사례 등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발전방안을 이야기했다.

이를 보면서 광주는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만 가득한 문화도시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가 다시 배운다는 의미에서 3편의 발제문에 대한 ‘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통해 새로운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모두를 위한 문화도시

1 실천과제를 정하고, 2 지역문제를 시민의 이야기로 풀어내기 위해, 3 자원 활용에 대한 방법론을 고려하며, 4 추진주체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원주테이블은 의미 있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특히 발표문 가운데 그 의미 있는 방법론으로서 플래네티이블과 이오프로그램은 실천가능한 목표이며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 1) UN의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문화적으로 접근한 방식은 참으로 의미 있지만 이 중에서 원주에 필요한 단기적, 장기적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광주에게 필요한 단기적, 장기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 문화예술교육이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힘이며 삶의 질적 생존에 필요하다면 초등학생에서 성인들에게까지 확대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인 1시민 문화교육의 가능성이 있는가.

2.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샛פור

샛פור의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문화예술미래회의의 운영은 필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코로나)의 시책들을 보면 일반 다른 도시들(광주)과 크게 다르지 않다.

- 1) 단기적인 시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것이어서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 2) 요코하마의 문화예술도시창조회의의 사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지속가능성 관점의 광주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유네스코2030 아젠다가 문화와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한 것처럼 광주 동구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유희공간에서 찾고 있다. 원도심의 쇠퇴에 따른 고육지책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의 지속성만 유지된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 1) 마을사랑채는 소통, 나눔, 문화의 공간으로 사회통합의 공간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주민센터, 문화센터, 문화원의 문화공간이나 기존의 경로당과는 어떤 차별점이 존재하는가, 통합의 가능성은 없는가.
- 2) 각종 유희공간의 운영프로그램의 지속성만 담보된다면 도심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운영주체가 많아진다는 단점(예산, 참여인력, 프로그램 등)이 있고, 각 공간간의 프로그램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 안

- 1) 사실 정책입안자인 시장과 공무원, 의원들의 문화적 마인드가 절실하다. 하지만 선출직 시장, 구청장, 의원들로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고 공부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광주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이든, AI도시이든, 기후도시이든 명확한 비전과 한방향 정책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 2) ‘여럿 중의 하나’로서 문화정책을 다룰 것이 아니라 비전의 중심에 문화예술정책을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목표들을 ‘여럿 중의 하나’로 수립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광주의 도시비전이 문화도시다운 비전과 명확한 실천행동을 보여야 한다.
- 3)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라고 주창하면서 비엔날레, 미디어아트창의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등 중요한 정책적 자원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 4)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나온 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이다. 도시 전체의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커리큘럼화, 학점제 운영 등을 통한 1인1시민 ‘문화자격증’ 이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민·관·정 협의체 역할 및 과제

사회 **윤준혁** 지원포럼 도시환경분과 위원, (주)지니엑스 대표

토론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지형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

박종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상임대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ACC개관 7주년 시민대토론회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

환경·사회·경제 가치의 조화

주최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협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